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國際關係

世界軍事情勢動向에서 본 南北軍事關係의 長短期展望

研究執筆責任 李 基 遠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 卒業 (1956)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 (1959)
서울大學校 文理大 講師 (1959~1962)
檀國大學校 專任講師 助教授 (1962~1964)
國防大學教授 (1964~現在)

刊行責任 李 範 赫 (調查研究室 研究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序 論	1
第 1 章 軍事와 關聯된 諸要素分析	5
第 1 節 政治的 要素	5
第 2 節 經濟的 要素	9
第 3 節 軍事的 要素	17
第 2 章 微視的 軍事模型分析	21
第 1 節 戰略核戰爭	21
第 2 節 戰術核戰爭과 在來式通常戰爭	27
第 3 節 局地戰爭	30
第 3 章 아시아 地域戰略情勢判斷	40
第 1 節 不確定要素	40
第 2 節 軍事情勢判斷上의 考慮要素	44
第 3 節 戰略的 均衡의 諸模型	49
第 4 章 南北韓 軍事狀況	58
第 1 節 韓國의 軍事狀況	58
第 2 節 北韓의 軍事狀況	64
第 3 節 韓國軍事에 提起되는 問題點	70
結論 및 對備策	75

序 論

1960年代가 美国을 中心으로한 西方勢力과 蘇聯이 支配하는 共產圈으로 兩分對立되었던 戰後의 冷戰體制의 清算, 東西接近의 機運 대두 및 政治的 多元化에로의 轉移를 記錄한 年代라고 한다면 1970年代라는 10年동안은 美国, 蘇聯, 中共, 日本 및 西歐로 構成되는 5極體制의 定立의 年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러한 5極은 力關係에 있어 相互 大差없는 立場은 아니다. 적어도 美·蘇兩國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또는 軍事的으로나를 莫論하고 大國이며 影響力의 行使範圍도 汎世界的이다. 이에 對하여 中共, 日本 및 西歐는 그 能力에 있어서 美·蘇兩國에 比하여 顯著한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影響力行使範圍는 아시아地域에 制限되고 있으며 西歐와 日本은 經濟大國에 屬하나 아직 그 影響力의 行使範圍는 유럽과 아시아에 制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共, 日本 및 西歐가 美·蘇兩國과 더불어 國際政治의 <場>에 있어서 極을 이루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 나라의 힘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軍事力의 性格의 變化에 있는 것이다. 즉 現代의 軍事力은 엄청나게 巨大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破壞力이 人類共滅을 가져올 程度가 됨으로써 그 累積的 効果는 逆說의으로 減少되고야 말았다.

이러한 現象은 結果的으로 強大國間의 戰爭可能性을 減少시키고

이러나 平和共存의 關係를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核이라는 大巨人이 無差別의 戰爭으로 부터 새로운 選擇을 提示하여 人類를 일단 終末로 부터 救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새로운 選擇의 死角에서 그 脆弱性을 利用한 여러 暴力現象을 除去하지는 못하고 있다. 確實히 70年代라는 1世代는 <戰後以後의 時代>로서 複合的인 要素로 構成되는 힘을 背景으로 하는 超強大國의 軍事的 兩極體制을 維持하는 한편 政治的 多元化의 幅을 擴大해 가는 戰後以後의 國際인 安定化의 새로운 勢力均衡의 理論이 適用되어 나갈 것으로 豫測된다.

따라서 強大國은 威脅으로 부터 調整으로 轉換해 나가고 있지만, 그들 強大國의 國家利益이 相衝되는 辺境地域에서는 그들의 國家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한 分散된 暴力의 늘음에 露出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念頭에 두고 世界軍事情勢의 長期判斷과 南北韓軍事狀況을 檢討코자 한것이 本論文의 줄거리다. 그러나 軍事情勢를 分析한다는 것은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未來學的 立場에서 적어도 10年前後를 한 동안으로 잡아 長期的인 豫測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軍事情勢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事實의 羅列이 아닐진대 科學的인 方法論의 導入을 必要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模型理論(Modol theory)을 利用하기로 하였다. 즉 한 동안-期間-에 있어서의 特徵을 模型으로 設定하는바

그 모델의 수는 相当數에 達할 수가 있다. 즉 武器體의 模型, 戰略概念의 模型, 政策決定의 模型, 軍事技術의 模型等 여러 系列의 模型을 設定할 수가 있는데 軍事情勢는 바로 이러한 模型의 複合體인 것이다. 이러한 相当數에 達하는 模型의 複合體를 벡터 (Vector)로 만들어 行列式에 代入하여 풀어 나감으로써 軍事情勢를 거의 機械的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여기에는 「컴퓨터」의 힘까지 動員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作業에 依한 軍事情勢의 判斷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으로서 여기에 오늘날 여러 局面에서의 分業에 依한 軍事情勢判斷이 發達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現況이다.

이런 까닭에 本研究에서는 可能한 모든 模型의 設定에 依한 分析이 不可能함으로 自然히 選擇의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選擇의인 模型으로서 첫째 軍事的인 것에 깊이 關與될 것으로 看做되는 諸要素를 巨視的인 意味에서 다루었으며 둘째 微視的인 軍事模型을 檢討하고 셋째 從屬體系로서의 아시아地域戰略判斷을 試圖하는 한편 넷째 위에서의 諸狀況이 南北韓軍事狀況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며 特히 韓國軍事狀況에 提起되는 問題가 무엇인가를 導出하고 끝으로 이에 對한 對備策을 마련함으로써 結論으로 代하였다.

이러한 研究過程에는 많은 論理的인 飛躍이 不可避했으며 模型設定의 妥當性與否에 對한 檢討가 必要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省

略했기 때문에 模型自体에 對해서 많은 異論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을 排除하지 않았다.

第1章 軍事와 關聯된 諸要素分析

— 巨視的 模型 —

第1節 政治的 要素

1. 오늘날 世界政治의 趨勢는 福祉에 對한 熱望이 繼續的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즉 世界 어떤 나라를 莫論하고 社會福祉問題가 매우 重要한 問題로서 提起되고 있는바 이는 國富에 對한 再分配를 不可避하게 作用케 하는 要因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富의 再分配를 福祉面을 考慮하여 再分配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것은 事實上 한 나라의 財貨라는 것은 無限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制限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기 때문에 軍事費의 投入을 間接的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直接的으로 制限을 加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意味에서 福祉熱望과 軍事費의 投入과는 反比例關係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날 이러한 福祉熱望은 그 어느 때보다도 漸次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이 앞으로 逆行할 可能性은 全無하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적어도 現在 趨勢로 보아 時系列上에 집어넣는 경우 無限時系列的으로 進行될 것으로 判斷되는 것이다.

2. 從前까지의 國防概念이 政治面에서 거의 깨져가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原來 한 나라의 国内秩序는 어디까지나 治安이라고 하는 特異한 強制組織이 担当하고 軍事라고 하는 또 하나의 特異한 強制組織은 對外的인 威脅으로 부터 國家의 安全保障을 担当하는 것이라고 通念上 理解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이러한 概念은 現實에 投影하는 경우 어긋나는 面을 露呈시키고 있다.

오늘 날에 있어서는 國防態勢와 国内治安態勢가 共히 하나가 되어 國防態勢 겸 治安態勢의 役割을 担当해 나가고 있는 趨勢가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強制裝置는 事實上 国内에 있어서는 治安維持 또는 支配態勢의 手段이 되고 있는 同時에 對外的으로는 國防을 担当하기에 이른바 이 경우 治安이라고 하는 特異한 強制裝置까지도 動員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世界 各國의 政策은 勿論 그것에 對한 一般國民이 갖는 思考方式은 거의 그런 面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매우 濃厚해 지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事實은 軍事面과 關聯해서 새로운 問題를 우리에게 提起시켜 주고 있다는 것은 興味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既往의 通念에 依하면 國防이라는 것은 現實적으로 假想敵의 設定을 必要로 하였다. 假想敵을 設定하지 않는 國防이라는 것은 概念的으로 보더라도 自家矛盾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事實 假想敵이 없는 國防이라는 것은 無意味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에도 不拘하고 오늘 날 여러 群少國家에 있어서는 現實的으로 假想敵을 設定할 수 없는 國防態勢가 盛行하고 있음을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例를 <東南亞國家聯合> (ASEAN) 諸國에서 보기로 하자. 이들 國家들은 下記 統計에서 볼수 있듯이 적지 않은 軍事力을 確保하고 있다.

軍 事 力 의 概 況

(基準年度 不詳)

國 名	總 兵 力	國 防 費
인 도 네 시 아	317,000	2억 8670 萬 달러
마 레 이 지 아	55,000	3억 1470 萬 "
필 리 핀	31,000	9320 萬 "
상 가 포 울	17,100	2억 4930 萬 "
泰 國	150,000	2억 4970 萬 "

(英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 : 軍事力均衡 , 72)

그러나 이들 諸國은 對外關係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말하는 意味에 있어서의 假想敵이 없는 것으로 알려워지고 있다.

다만 이른바 間接侵略에 對한 假想敵觀念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며

그 背後勢力으로 中共을 想定시키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通念的으로 말하는 直接的인 假想敵으로 想定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事實은 아프리카地域의 新生諸國이라던가 라틴, 아메리카地域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볼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假想敵 없는 國防軍들이 現在로서는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다.

즉 비록 國防力の 힘의 程度로 보아서는 보잘것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數에 있어서는 圧倒的인 實情이다. 이러한 事實은 오늘 날 國防概念에 對한 重大한 變化가 政治面에서나 軍事面을 莫論하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事實은 적어도 時系列上으로 볼때 長期間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3. 오늘 날 그 어느 때 보다도 軍事力에 對한 名分の 問題가 漸次로 強調되어 나가고 있다. 例로서 越南戰爭이 遂行되는 過程에 있어 興味있었던 것은 世界 各處에서 越南戰爭의 正当性如 否의 問題를 둘러싸고 치열한 論爭이 展開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戰爭當事國의 하나였던 美國에서는 國論이 兩分되는 事態까지 發生했다는 事實이다.

勿論 戰爭의 正当性 如否問題가 問題로서 提起된 것은 오늘 날에 이르러 비롯된 것은 決코 아니다. 적어도 第1次大戰以後에 있어서는 國際法上 戰爭은 自衛가 아닌 限에 있어서는 不當한 것

으로 理解되었다. 그러나 自衛를 위한 戰爭이라는 戰爭 名分은 充分한 說得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 날 이른바 代理戰爭이라는 現象이 盛行하고 보면 그 戰爭의 名分이 무엇인가 하는데 一沫의 懷疑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戰爭의 名分이라는 것이 매우 重要的 役割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傾向도 現在로서는 앞으로 擴大될 可能性은 있을 망정 減少될 展望은 稀薄하다 하겠다.

第 2 節 經濟的 要素

1. 軍事面에 있어서 使用되어야 할 世界의 資源量이 漸次로 制限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軍事面에 投入되는 것에 對한 抵抗이 거의 世界 各地에서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매우 重要的 問題가 아닐수 없다.

여러 資源에서 그런 現象이 立證될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代表的인 에너지資源에서 그 例를 보기로 하자. 오늘 날 富에 對한 各國의 參與度를 에너지消費量에 두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런데 에너지消費構造는 일찌기 1960年을 前後하여 固型에너지 - 石炭 等 - 中心으로부터 流動에너지 - 石油, 天然가스等 - 中心으로 轉換되었다. 즉 大體로 1960年頃에는 固型에너지 對 流動에너지의 比率은 50:50 程度이던 것이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固型에너지 對 流動에너지의 比率은 40:60이라는 大變動이 일어

났다. 이러한 大變動은 如前히 繼續되어 1985年頃에는 固型에너지 對 流動에너지의 比率은 12% : 88%가 될것으로 展望되고 있는 實情이다. 流動에너지 가운데서도 特別히 石油의 消費量이 上昇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原子力은 적어도 1985年頃까지는 그 使用이 一般化되기란 어려운 實情이며 火力이라든가 水力은 停滯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날 石油의 1日生産量은 約4300萬바렐인바 그 가운데서 自給自足이 可能하다는 蘇聯과 中共을 除外한다면 나머지가 85% 程度되는데 이것을 100으로 보는 경우 그 中 80%以上은 美國, 日本 및 유럽諸國이 消費하고 其他 新生國은 30%程度를 消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勿論 新生諸國들의 石油消費量도 날이 갈수록 急激히 增加될 것만에는 틀림없으나 世界消費量의 比率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大體로 23%를 넘기 어렵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따라서 圧倒的으로 先進國들이 많은 石油를 消費하고 또한 先進國 가운데서도 西方側에 있어서는 美國, 유럽諸國 및 日本이 으뜸을 차지하며 共產側에서는 蘇聯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

1959年부터 1969年까지의 10年동안에 人類는 「텍사스」 油田 発見의 1859年부터 1959年까지의 1世紀동안에 消費한 量과 거의 비슷한 量의 石油를 消費했다고 1973年 4月8日 日字 「엑스프레스」紙는 報導하였다. 이러한 趨勢는 向後 10年동안에 있어서는 즉

1971년부터 1980년까지에는 더욱促進되어 約 2,000 억바레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激한 消費量의 增加는 生産量을 上回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것이라는 點이 重大한 問題를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즉 大體로 보아 1980年代에 있어서의 石油生産量은 現在 推計로서 約 1억바레로 보고 있는데 對해서 消費量은 約4억바레에 達할것으로 보고 있다. 美國의 例를 들어보면 美國은 1960年以前까지에 있어서는 自給이 可能하였다. 그러나 1970年에 와서는 約 20%를 對外依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年에 가서는 1日消費量이 2400萬바레로 推算되고 있는데 國內生産量은 그 折半에 未達되고 있는 形便임으로 對外依存度는 3分の 2以上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같이 總生産量과 總消費量間의 格差가 너무 甚한 뿐만 아니라 이 格差를 메꾸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새로운 油田의 開發이 推進되고 있으나 비단 그것이 어느 程度의 成功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을 補充할 길이라는 것은 적어도 現在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가장 重要한 戰時物資 또는 平時物資로서 爭奪의 對象이 되는 것이 石油고 보면 先進諸國은 供給能力이 있는 地域에 있어서 有利한 高地를 占領하기 위하여 切열한 競争을 展開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오늘 날 萬一 平時生産에 있어서 차질을 주

는 「에너지」供給에 重大한 影響을 준다는 것이 明白히 되고 또 그것이 宣傳되는 경우 이런 「에너지」에 對한 軍事面에 있어서의 需要를 減少하자는 強力한 主張이 提起될 可能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굽기야는 世界軍縮會議에서 까지도 이 問題가 提起되어 論議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世界資源의 制限이 世界物質文明의 發展에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軍事面에서 過度하게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全世界의 福祉問題 또는 全世界의 平時生産에 制限을 주고 있다는 認識이 高潮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認識이 高潮되면 될수록 軍事面에는 不利한 要素로 作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다.

2. 오늘 날 世界에는 이른바 갖춘 나라 (Have State) 와 안 갖춘 나라 (Have not State) 間의 隔差가 매우 顯著하다. 즉 오늘 날 世界國家數는 約 180 個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 가운데서 1人當 國民所得 1,000 달러以上이 되는 國家는 不過 21 個國程度이며 나머지는 그 以下에 屬한다. 安 갖춘 나라의 數가 圧倒的임을 알수가 있다. 勿論 過去에 있어서도 안 갖춘 나라가 多數를 占하고 있지 않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當時에 있어서의 안 갖춘 나라들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거의 보잘 것 없는 存在였을 뿐만 아니라 그 担当하는 役割도 微微하여 無視해 버릴 수 있는 程度였다.

이에 反하여 現在에는 이들 안갓은 나라들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그들 나뉠대로의 役割을 担当하게 되었다. 1964年 UNCTAT 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當時 안갓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갓은 나라에 對해서 不滿을 實吐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갓은 나라에 對해 안갓은 나라는 富의 隔差가 너무나도 甚하다는 것이었다. 안갓은 나라는 갓은 나라에 對해서 富의 再分을 要求하고 나섰다.

이러한 안갓은 나라들의 要求에 對해서 갓은 나라들은 GNP의 1%範圍內에서 後進國에 援助하겠다는 것을 約束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先進國과 後進國間의 富의 隔差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漸漸 擴大되어 나갔다. 勿論 안갓은 나라들은 個別的으로 絶對的인 成長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 後進國 自體內에는 여러 階層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놓고 볼때는 그 隔差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隔差의 深化傾向은 長期的으로 보더라도 擴大되던 되었지 減少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狀況에 있어 過去와는 달리 그들 나뉠대로 國際政治에서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이들 안갓은 나라들의 世界富에 對한 再分配의 要求가 여러 方面에서 提示될 것이 予想된다. 그러한 要求는 때로는 第3世界運動으로, 또는 中立化運動으로 또는 地域別運動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運動이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던지간에 그것은 結果

的으로 政治的 争点 나가서는 軍事的인 禍根을 물고을 可能性이 있다. 이는 軍事發動에 聯關되는 各國政策의 動機賦와로서 作用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세계 模型은 技術의 急速한 發達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날의 技術發達速度는 그 速度에 있어서 既往의 2,000 년동안의 速度에 比하여 몇배가 된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면 技術發達이 이런 速度로 展開되는 경우 그 結果가 무엇을 意味하게 되느냐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한편 이 技術速度는 오늘 날 主로 資本主義體制라는 方式-勿論 社會主義體制에 依해서도 없는것은 아니지마는 大勢는 資本主義體制에 依한다는 것을 意味함. -에 依해서 展開되고 있다. 이런 限에는 自然히 利益中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利益中心의 科學技術의 發達은 副隨的으로 公害問題를 가져다 주었다.

이 公害問題는 科學技術의 發達과 併行해서 技術에 對한 一種의 反技術運動이 나오고 이 運動은 連鎖反應을 이르게 심지어는 反體制運動으로까지 發展될 根源이 되고 있다. 이것도 長期予測으로 볼때 減少될 可能性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事態가 現在 經濟體制 全體에 對한 批判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例하면 資本主義 生産體制下에 있어서 公害問題를 提起시킨 生産品의 原價計算은 非合理的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프라스틱價格의 設定을 工場에서

直接投入되는 것에 附加價值를 加算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自然히 프라스틱 價格은 安撫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값이 싸다가 보니 商品市場을 独占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프라스틱 價格의 廉價한 理由는 프라스틱에서 나오는 公害에 對한 그 나라 또는 그 社會全體의 負擔은 프라스틱 價格 속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公害 때문에 생기는 公害預防을 위한 國家財政 또는 社會負擔은 처음부터 프라스틱 價格을 決定하는데 考慮되고 計算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으로는 價格計算에서 除外되며 그 結果 價格이 싸고 公害處理를 위한 負擔은 納稅義務者가 져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公害로 말미암아 禍를 입거나 兩者拮一의 가름길에 있는 形便에 있다. 따라서 이런 法制下에서의 商品生産方式 또는 價格計算이 正當하나 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軍需工業에 直接的인 關聯이 있다. 原來 軍需工業은 利益追求라기 보다는 軍事的 効率性에서 考慮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公害問題는 別個의 問題로 取扱되었다. 위에 指摘한 利益追求 또는 軍事的 効率이라는 것이 아닌 다른 角度에서 經濟에 對한 問題가 提起될 것인바, 이것도 軍事面에서는 抑止要素가 아닐 수 없다.

4. 國際企業은 軍事政策面에 크게 關与되는 問題로서 대두되고

있다. 國際企業은 既往의 「카르테르」 또는 「신더케이트」와는 그 性格이 全然 다르다. 즉 國際企業은 資本을 海外에 進出하되 그 現地の 法體系에 맞추어 資本을 投入하고 投入된 資本은 現地人의 經營下에 委任하며 다만 投下된 資本의 果實을 利益으로 回收해 가는 形態인 것이다.

오늘 날 「달러 인플레이」의 原因은 國際企業에 依한 달러流出에 있다. 가까운 將來에 日本의 圓貨도 같은 經路를 밟을 것으로 予測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와같이 國際企業體가 構成되어 海外로 進出하는 경우 國家의 基本財政政策이나 經濟政策과 矛盾되는 面이 露出된다.

그 代表的인 例가 美國이다. 美國은 世界貨幣로서 自如하던 「달러」가 世界에서 不信받고 兌換성이 없는 過剩달러의 流出로 말미암아 世界 「인플레이」에 甚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美國政府는 이와같은 事態를 除去하려고 努力하고 있는데 反하여 國際企業이라는 形態로써 달러는 繼續 流出되고 있다. 이와같이 流出된 資本의 回轉은 長期間이 所要될 뿐만 아니라 不規則의이어서 國家財政政策이나 經濟政策과는 一致되지 않는다.

既往에는 1國의 資本이 投下되고, 投下된 資本에 威脅이 發生했을 경우 戰爭이 惹起되거나 軍事的 紛糾의 原因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國際企業이 盛行할 뿐만 아니라 그의 多角的인 發達은 漸次로 어디까지나 自國의 利害關係에 關係되는 것이고 어디

까지나 相對方에 關係되는 問題인지 区分하기가 困難하게 되었다.
國家利益을 判斷하는데 一大混亂이 惹起된 것이다.

오늘 날의 國際企業은 國際政治學的 立場에서 보면 國民經濟的인
들을 넘어서 反國民經濟的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反近代
國家的인 性格을 갖게 되었다고 理解된다. 이런 狀況은 아직도
國民的인 國家 또는 近代國家的인 立場에서 軍事政策을 다루는 政
府의 立場에서는 自國人에 依하여 流出된 방대한 資本을 擁護한다
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 規定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混亂때문에 軍事政策의 設定에 重大한 影響이 오게 되었다.
代表的인 例가 NATO에서의 問題이다. NATO地域에 美國이 많은
資本을 流出하여 國際企業化하고 있는바 이에 對하여 일찌기 드글
大統領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때 美國은 이 반발에서 自國人이
投下한 資本을 擁護할 것인지 如否의 判斷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
웠다. 오늘 날 美國의 NATO에 對한 政策이 不動的인 理由는
바로 이러한 經濟的인 것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이 模型
도 長期予測으로 볼때 持續될 것으로 展望되며 따라서 軍事面에
制約要因으로 作用될 것이다.

第 3 節 軍 事 的 要 素

1. 自動戰爭을 위한 軍事技術의 發達이라는 問題가 있다. 다시
말하면 戰爭터에 있어서의 自動化 問題이다.

最新科學의 精粹로서 이루어진 特殊武器를 體系的으로 驅使함으로써 自國의 軍事力에는 最小限의 犧牲을 가져오는 反面에 敵에는 徹底하게 損害를 加한다는 이른바 効率的인 殲滅體系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効率的인 殲滅體系는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더욱 高度化되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將次戰에 있어서의 自動化戰場을 想定해 보자. 앞으로 各種 電子武器와 特殊武器를 組合한 機械化戰場에 있어서 重要的 役割을 担当할 것으로 予想되는 것은 各種 探知器인 「센서」(Censer)이다. 그 가운데의 한 예가 ADSID (空中投下震動感知器)이다. 이것은 航空機에서 投下되며 投下된 感知器는 偽裝된 안테나만을 地表에 나타내고 本體는 地中に 埋沒된다. 그리하여 軍隊의 移動이라든가 車輛의 땅을림으로써 把握하여 正確하게 量的으로 分析하여 報告하는 作業을 遂行하는 것이다.

感知器에는 이와 같이 音響을 把握하는 것 外에 體溫으로 感知하는 것, 體臭를 感知하는 것등을 비롯하여 各樣各色의 것이 있다. 이러한 Censer는 各種手段에 依해서 各地에 配備되며 配備된 Censer는 즉각 電子機構를 作動하기 시작하여 警戒信號를 보내게 된다. Censer가 撒布되어 있는 地域의 上空에는 끊임없이 無人偵察機와 空軍의 戰術偵察機가 飛行하고 있다. 「센서」가 発言한 警戒信號를 捕捉한 偵察機는 즉각 特定地域에 設置되어 있는 情報管制센터에 그 事項을 傳達한다. 이 警戒信號를 受信한 情報管制

센터는 電子計算機에 依하여 各種諸元을 導出하고 그 導出된 結果를 各種部隊에 任務로서 賦與하여 敵을 殲滅토록 한다. 勿論 戰爭의 自動化는 이런 事項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部分에 걸쳐 進行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며 이는 長期的으로 볼때 더욱 促進될 것임에 틀림없다.

1969年 10月 「웨스트모랜드」 將軍은 美軍協會年次總會席上에서 「自動化 戰場에 關하여 裝甲師團이 機動力을 갖기에는 數百年이 所要되었다. 그러나 보다 迅速한 機動力을 갖는 空中機動師團이 出現하기까지는 裝甲師團出現以後 不過 20餘年밖에는 所要되지 않았다. 우리가 一致協力한다면 自動化戰場이 實現될 날은 向後 10年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

要컨데 自動化戰場은 少數의 熟練된 高度의 技術者와 같은 戰鬪員이 모든 最新의 科學武器를 體系的으로 驅使하여 戰場을 監視制壓하여 어떠한 兵力이든지를 莫論하고 徹底하게 殲滅한다는 것으로서 機械가 모든 것을 制壓해 가는 戰場의 實現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交戰에 있어서의 戰鬪員으로 投入하는 兵力은 自動化 또는 機械化의 進展에 따라 反比例할 것이다. 즉 모든 分野에 있어서 兵力이 減少되고 機械가 이에 代置되어 나갈 것이다.

이 경우 戰爭터에 있어서의 自動化라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게 되는가 하는 問題와 더불어 國內軍事體制가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問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 <政治的 要素>에서 이미 指摘된 事實이지만 假想敵이 없는 國防概念이 軍事에 어떠한 結果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超強大國, 強大國 및 地域에 따라서는 몇몇 國家의 경우 假想敵이 明白하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들을 除外한다면 大多數의 群少國은 假想敵이 없는 國防態勢를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假想敵을 想定시킨다는 式의 從前까지의 國防概念이 廢되어가는 傾向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傾向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軍事는 어떠한 軍事여야 할 것인가? 또한 그런 軍事와 國內治安力과는 어떤 關係가 設定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假想敵을 갖지 않을 수 없는 超強大國 또는 強大國以外的 모든 國家들은 아마 向後 10年 동안에 이러한 問題들이 軍事面에서 겪지 않으면 안될 큰 問題인 것 같다.

第 2 章 微視的 軍事模型分析

第 1 節 戰略核戰爭 (Theatre of strategic Nuclear)

이 概念은 世界의 어느 地域을 莫論하고 影響을 미치며 超強大國이 超強大武器를 使用하며 遂行하는 戰爭을 말한다.

現在는 勿論 적어도 1985年까지의 期間을 놓고 볼때 美·蘇兩國을 除外한 國家 또는 國家群이 超強大國으로 登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戰略 核戰場의 問題는 美·蘇兩國間의 問題인 것이다. 비록 美·蘇兩國間에는 下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사일의 基數나 그 性能에 있어서 差異가 있을망정 全體的으로 是 核武器에 있어서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均衡은 적어도 1985年까지 維持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反証해 주는 것은 戰略武器制限會談에서 合意 本 「모스크바」暫定 協定이다.

美國은 大體로 1960年代의 軍事費編成에 있어서 研究開發費 (R & D)를 除外한다면 그외의 軍事費는 中共封鎖一環으로서의 越南戰遂行에 重點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그 重點이 蘇聯으로 轉換되었던 것이다. 즉 軍事費의 趨勢에서 보면 美國의 경우 1965年以後 一路 膨脹했다. 事實上 美國은 1965年以後 71年 사이에 越南에서의 實戰에 直接的으로 投入한 軍事費가 約 1,400 億달러에 達하고 있다.

美·蘇戰力之变化 (1962~72年)

区	分	62年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美	I C B M	294	424	834	854	904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S L B M	144	224	416	496	592	656	656	656	656	650	656			
蘇	長距離爆擊機	600	630	630	630	630	600	545	560	550	505	455			
	I C B M	75	100	200	270	300	460	800	1,050	1,900	1,510	1,530			
聯	S L B M	若干	100	120	120	125	130	130	160	280	440	560			
	長距離爆擊機	190	190	190	190	200	210	150	150	150	140	140			

米 (英国 國際戰略問題研究所：軍事力均衡 1972 ~ 1973)

美・蘇核戰力の性能

区 分	型 式	最大射程(Mib)	推定彈頭威力	
美 国	ICBM	타 이 탄 II	7,250	5-10 MT
		미닛트먼 I	7,500	1 MT MT
		" II	8,000	1 ~ 2 MT
		" III	8,000	3×200 KT
	SLBM	포라리스 A2	1,750	800 KT
		" A3	2,850	1MT 또는 3×200
		모 세 이	2,880	10×50 KT
戰略爆擊機	B 52	11,500	(最大積載量) 60,000 파운드	
蘇 聯	ICBM	SS-7	6,900	5 MT
		SS-8	6,900	5 MT
		SS-9	7,500	20 ~ 25 MT
		SS-11	6,500	1 ~ 2 MT
	SLBM	SSN-5	750	MT級
		SSN-6	1,750	"
		SSN-4	350	"
	戰略爆擊機	Tu 95	7,800	40,000 파운드

(英国 國際戰略問題研究所: 軍事力均衡 72 ~ 73)

한편 蘇聯의 경우에는 軍事費의 增加를 보았던바 蘇聯은 美國과는 달리 그 大部分을 ICBM, 海軍力強化에 投入했기 때문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宇宙武器에 있어서 優勢한 位置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繼統的인 海軍力의 增強努力에 依하여 적어도 1975년부터 1977年 사이에 美·蘇間에는 이 面에 있어서도 均衡을 維持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美國의 國防豫算支出水準

(單位/억달러)

年 度	國 防 費	年 度	國 防 費	年 度	國 防 費
1953	607	1961	465	1969	654
1954	563	1962	503	1970	594
1955	466	1963	510	1971	532
1956	447	1964	508	1972	
1957	455	1965	453	1973	
1958	458	1966	512	1974	
1959	467	1967	617	1975	
1960	461	1968	684	1976	

※ 64年 달러로 換算(美國:國防白書)

準備가 되어있지 않다는 면에 있어서는 유럽地域이나 아시아地域이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다.

유럽地域에 있어서 NATO와 WARSAW를想定할 수 있는데 NATO의 예를 보면 歐美聯合軍으로 構成되고 있는바 이것은 既往에 美國의 聯盟體制下에 생겼던 防衛體制이며 또 그것에 따른 武器體系指揮體制가 展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通貨危機라든가 닉슨 독트린 등을 契機로 漸次로 聯盟體制에서 獨立하여 單一體制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統攝을 어떻게 하느냐에 鎭痛을 겪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나 政治的 및 軍事的인 單一體制의 形成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必要로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單一體制形成을 沮止하려는 最大의 努力이 蘇聯側으로 傾注되고 있다. 蘇聯은 유럽安保, 協力會議과 相互均衡兵力減縮會議(MBFR)에서 바로 이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아시아地域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向後 10年동안을 놓고 생각할 때 아시아地域에서는 韓半島를 中心으로 이른바 4大國體制가 維持될 것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그러나 日本과 中共은 모두 強大國으로서의 準備體制가 적어도 1980年代까지는 이룩되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의 경우 軍事技術, 武器體系의 整備, 軍需要産業의 發達速度 등으로 보아 1980年까지에는 強大國으로서의 軍事能力의 確保가 困難하기 때문이다.

勿論 中共이 1975年頃 ICBM, IRBM 및 MRBM 등을 어느程度 保有할 것만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것들은 特殊事態下에 対応可能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全般的 模型形態에서는 強大國으로서의 能力을 保有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1980年代의 戰爭의 特色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로서 空中機動力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中共은 이런 能力을 保有하지 못할 것으로 展望되는바 따라서 固定防備는 可能할지 몰라도 攻擊하는 경우 弱點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日本은 國內政治의 性格上으로나 日本이 차지하는 政治的 位置로 보아 軍事能力確保의 整備가 不振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즉 日本에 있어서 그동안 執權하고 있던 自民黨의 一黨에 依한 執權은 大體的으로 깨지고 聯立政權이 登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軍事體制의 整備가 促進되기 위해서는 特殊事態의 發生을 必要로 한다. 즉 急激한 恐慌 世界的인 不景氣와 같은 事態가 發生하는 경우 日本의 軍事力의 增加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한편 日本이 차지하고 있는 政治的 位置에서 볼때 日本의 動向에 對해서 美國 蘇聯 및 中共은 매우 銳敏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日本의 動向에 對해서 3大強國은 直刻的으로 反作用을 하게 된다. 따라서 日本이 強大화된다는 것에 對해서는 심지어 美國을 包含하여, 蘇聯이나 中共이 모두 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美·中共間에 合議된 上海共同聲明은 첫째 假想敵으로서 蘇聯을 想定하고 있으나, 둘째 假想敵은 日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日本이 強大國으로서의 軍事能力을 함부로 確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直面하게 된 美國은 1971年부터 對蘇均衡維持에 努力을 傾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將次는 均衡維持競爭時代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均衡이 維持되는 限 적어도 戰略核戰爭의 可能性은 稀薄한 것으로 判斷된다.

第 2 節 戰術核戰爭과 在米式通常戰爭

前者의 경우는 強大國間의 地域核戰爭을 말하며 後者는 地域通常戰을 말한다.

주 例를 들면 유럽地域에서 NATO와 WARSAW와 같은 地域軍이 交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며 아시아地域에서는 日本과 中共이 軍事的인 實効를 걸을 수 있는 軍事力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런 形態의 戰場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戰術核戰爭과 在米式通常戰爭을 美國 國防白書에서는 區別하고 있으면서도 한데 묶어 같이 說明하고 있다.

事實上 現實의으로 보면 戰術核戰爭과 在米式通常戰爭은 区分하기가 어려운 狀態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前까지 유럽地域에 配備되어 있는 3,000 余個의 核武器體系는 核戰爭으로 看做할 수도 있다는 見解가 있었으며 또한 最近에는 小型 核武器를 制限하여 使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경우 核反應은 不可避할 뿐만 아니라 周辺地域에 汚染되고 그렇게 되면 相對方의 더 큰 核反應이 發生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強大國이 干与하는 이와 같은 地域戰爭은 現在로서 減少되고 있으나 1980年代以後에 있어서는 그 可能性이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 理由는 純軍事的인 것으로 現在 強大國間의 關係가 아직 그런 軍事的 對決을 遂行할 수 있는 準備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設使 日本이 強大國으로서 軍事能力을 保有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地域의 性格, 다시 말하면 軍事地理的인 性格이 戰術核戰爭이라던가 在來式通常戰爭과 같은 地域戰爭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지난날 例를 보면 狹少한 地域에서 勝負를 겨눌 수가 있었다. 그러나 現代에는 武器體系의 性格上 狹少한 地域에서 地域戰爭이 遂行될 可能性은 全無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蘇聯도 이 地域에 있어서 戰術核戰爭 또는 在來式通常戰爭을 願하고 있지 않는것 같다.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두가지의 模型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蘇聯이 1969年에 豫備戰爭의 敢行을 企圖했던 時期였으나 失期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後에는 中共이 어느정도의 報復力을 確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戰爭의 可能性이 稀薄해졌다는 說이다.

다른 하나는 蘇聯의 極東地方에 있는 特色인 것이다. 이 地方에는 現在 37%乃至 38%의 露西亞人을 除外한다면 全部가 異民族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獨立運動이 盛行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人口分布狀態에 있어 現在 中共人口는 「하루빈」을 基點으로 하여 雲南의 昆明에 直線을 긋는 경우 人口의 大移動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75%以上은 東南方面에 集中되고 있으며 殘余人口가 西北方面에 密集하고 있다. 特히 이 가운데 滿洲가 密集地帶의 一部는 周知의 事實이다.

人口比例에서 보면 「시베리아」地方에 100萬大軍이 配置되어 있다 하더라도 蘇聯은 中共에 比하여 弱勢한 位置에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地域戰爭이 發生하는 경우 初擊은 蘇聯이 有利할지 모르나 長期的으로는 不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地方은 蘇聯에 있어서 脆弱地域인 것이다. 「시베리아」地方에 配置되어 있는 100萬大軍은 單純히 攻擊과 防禦의 態勢로 看做되고 있었으나 이와 同時에 「시베리아」開發事業에 從事하는 勞動力이라는 點은 이 地域의 脆弱性을 長期的으로 拂去하는 要素가 될 것이다.

1980年代까지 強大國間의 戰鬪는 可能한 限 回避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닉슨·독트린」이라는 새로운 勢力均衡政策도 따지고 보면 強大國間에 均衡을 維持함으로써 強大國 사이의 對決을 避한다는 配慮가 長期的으로 介在되어 있는 것이다.

戰術核戰爭이나 在來式通常戰爭을 莫論하고 強大國이 이에 投入하는 兵力의 性格은 달라질 것이다. 現在 特定國家의 軍事力에 影響을 주는 要素는 兵力數이다. 즉 兵力數는 軍事力判斷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武器體系를 模型으로 하여 兵力을 投影하면 交戰에 있어

서 直接 戦闘員으로 投入되는 兵力은 自動化 또는 機械化의 進展에 따라 反比例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例하면 在來式通常戰爭에 있어 平地會戰의 경우 앞으로의 主武器는 戰車로 想定되고 있다. 따라서 反擊力, 速度, 堅固性, 火力 등이 研究되고 있는 反面에 戰車自體의 兵力을 減少시키는 問題도 提起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 4人乘戰車를 3人乘으로 開發中인 것은 그 代表의인 例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은 戰車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分野에 投入되는 兵力을 減少하고 그에 代身하여 機械로 代置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國內軍事體制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軍事體制上에 있어서 戰鬥兵力은 減少되는 反面에 支援兵力의 增大現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後方支援을 担当하는 輿論人員數에 重大한 壓力을 주는 結果를 가져 올 것이며 따라서 國防體制의 變化 乃至 改編을 不可避하게 할 것이다.

이런 狀況으로 말미암아 強大國間의 戰爭形態는 여러 面에서 變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第 3 節 局 地 戰 争

例를 들면 「방그라데슈」戰爭, 「아랍」, 「이스라엘」간의 6日戰爭과 같은 것으로서 從屬地域 (Sul-theatre) 에서의 通常戰爭을 말한다.

從屬體系에 있어서의 通常戰爭은 두가지 形態를 想定시킬 수가

있다. 그 하나는 從屬体系에서 假想的으로 戰鬥가 展開되는 경우 強大國의 1國이 局地戰爭遂行 當事國의 어느 한쪽에 加担하여 在來式通常武器를 使用하고 그 偉力을 發揮하는 경우이다.

이런 形態의 戰爭이 發生한다면 深刻한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性格은 다르지만 이런 形態에 가까운 越南戰에서의 例를 分析해 보기로 하자.

越南戰에 關한 1971年까지의 各種統計가 發表되고 있는바 그 가운데 人命被害에 關한 統計와 使用된 武器体系를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人命被害의 比較

戰 争	民間人被害率
1次世界大戰	4 %
2次世界大戰	20 %
韓 国 戰 争	25 %
越 南 戰 争	80 %

(英國國際戰略研究所, 戰略調查, 1972)

越南戰爭에 있어서 民間人의 殺傷率은 그 어느 戰爭보다도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80%를 100으로 볼때 死亡率은

30% 이상을 占하고 있는 実情이다.

使用武器種類

- (1) 헬리콥터와 같은 機動力
- (2) 枯葉劑
- (3) 反毅物劑
- (4) C.S.Gass
- (5) 로케이손 센서
- (6) 各種砲彈

各種砲彈投下量比較

- | | |
|----------|---------|
| (1) 2次大戰 | 200万톤 |
| (2) 韓國戰爭 | 100万톤 |
| (3) 越南戰 | 1,330万톤 |
| 地上砲火 | 66万톤 |
| 空中및艦隊 | 730万톤 |

이 例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萬一 좁은 地域에서 이런 形態의 戰爭이 發生한다면 그 結果는 戰術核武器를 使用한 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며 特히 1980年代에 있어서 軍事科學技術의 發達을 감안할때 그 被害는 幾何級數的으로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다른 하나는 純粹模型으로서의 局地戰爭이다. 韓國戰爭이라 「아랍이 이스라엘」戰爭이라든가 「방그라데슈」戰爭과 같은 局地戰의 特徵은 電擊戰이라는데 있다.

이와 같이 電擊戰을 敢行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었다. 즉 軍事力의 圧倒的인 優勢를 集中하여 勝利를 獲得한다는 理由가 있었겠으나 그러한 軍事的인 理由보다는 政治的인 理由가 보다 더 컸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強大國이 政治的으로 于與하는 것을 避한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局地戰도 電擊戰의 形態를 取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로서 提起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現在 模型의 投影에 依하면 그런 形態의 戰爭遂行은 稀薄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런 判斷을 뒷받침해 주는 資料는 美國 國防白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基本構想이다. 이에 依하면 美國은 對外的인 公約을 縮小할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公約의 縮小는 一方的인 것이 아니라 키신저外交의 特色인 相對方의 強大國과의 合意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地域을 勢力圈으로 부터 緩衝地帶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對外公約의 縮小란 強大國間의 合意를 前提로 여러 地域을 緩衝地帶化하며 緩衝地帶內의 運命은 그 속에 있는 小勢力들의 自体 決定에 一任한다는 原則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美中共接近에 依하여 合意된 事項의 하나는 다음아닌 東南亞一帶

의 緩衝地帶化이다. 이것에 対応하여 나온것이 ASEAN 諸國의 中立
化理論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從前까지의 局地戰에 있어서 그 性格을 決定한 것은 두
가지의 要因이 있었던 것이다. 그 하나는 局地戰이라 하더라도
同盟體制를 바탕으로 한 強大國의 武器供給이 競争的으로 있었다는
事實이며 다른 하나는 強大國 또는 先進國들의 이른바 武器賣却政
策에 依한 貿易政策이 있었다는 事實이다.

오늘 날 아직도 이 世上에는 國際緊張이 가사지 않고 있다.
이 國際的 緊張을 따지고 보면 各國의 軍事的 準備態勢·乃至 軍
事力의 整備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緊張은
無限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곳에나 있는 것은 決코 아니
다. 어느 地域에 緊張이 集中되면 다른 地域의 緊張度는 相對的
으로 緩和되기 마련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緊張을 處理할 수
있는 能力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다. 逆으로 그 能力을 造成해
주면 緊張이 發生되는 것은 當然한 論理的 歸結이다.

局地戰을 地域戰爭으로 擴大시키지 않으려면 強大國이 合意하면
될 것이며 特定地域의 緊張度數를 減少시키려면 그 緊張度數에 該
當하는 武器供給을 中斷하면 可能할 것이다. 오늘날 強大國의 움
직임은 이런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強大國의 措置가 이루어지는 경우 局地戰爭은 局地戰爭으
로 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너슨·독트린의 基本軍事戰略의
性格은 群少國의 緩衝地帶 設定이 真空化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強大國의 合意가 必要할 뿐만 아니라 同時에 그런 緩衝地帶에 있어서의 局地的鬭爭이 強大國에 波及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武器供與를 비롯한 其他의 戰鬭能力을 制限한다는 合意가 그 前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우리 國의 興味를 끄는 것은 軍事費의 趨勢이다. 1971年의 總軍事費는 無慮 2,130億 달러에 達하고 있다. 1961年부터 70年 동안에 軍事費는 約 82% 增加되고 있다. 이것을 100으로 할 때 世界인플레이에 依한 名目增加가 60%인데 對하여 實質增加는 40%에 지나지 않는다. 歷史上 40~50年間을 한 單位로 하는 경우 世界軍事費는 방대한 額數에 達하고 있으나 그 增加率은 減少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例를 들면 1950年代까지 軍事費의 絶對額은 적었으나 그 增加率은 GNP의 增加率보다도 높았다. 이에 對하여 1961年부터 71年 동안에 있어서는 軍事費의 增加率은 平均 3%인데 反하여 世界의 GNP 增加率은 平均 5%로서 世界經濟의 增加率보다 軍事費增加率이 적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있어서의 軍事費의 絶對額은 龐大한 것이다. 軍事費의 增加率이 各地域마다 平均的으로 增加한 것은 決코 아니며 어떤 特定地域에 있어서 大幅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地域別 統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国防支出의 对 GNP 比率 (%)

국명	国防支出 对 GNP %				국명	国防支出 对 GNP %			
	1968	1969	1970	1971		1968	1969	1970	1971
美国	9.3	8.7	7.8	7.3	핀란드	1.6	1.5	1.4	1.4
苏联	11.1	11.0	11.0	-	스웨덴	2.2	2.1	2.0	1.8
불가리아	2.9	2.8	3.1	-	스위스	3.9	3.9	3.7	3.7
체코	5.7	5.6	5.8	5.8	英国	2.4	2.2	2.1	1.9
독일	5.7	5.9	5.9	5.9	캐나다	5.4	5.0	4.9	4.7
항가리	2.9	3.4	3.5	3.5	덴마크	2.7	2.4	2.5	1.8
프랑스	4.8	5.0	5.2	5.2	프랑스	2.8	2.6	2.3	2.4
루마니아	3.0	2.9	3.5	3.5	독일	4.8	4.4	4.0	3.1
벨지움	2.9	3.0	2.8	2.3	러시아	3.6	3.6	3.3	2.8
노르웨이	3.7	3.6	2.9	3.1	일본	4.9	5.1	4.9	3.3
포르투갈	7.4	6.7	6.5	6.3	이탈리아	3.0	2.7	2.8	2.6
土耳其	4.5	4.2	3.7	3.3	룩셈부르크	1.0	0.9	0.9	0.9
오스트리아	1.2	1.2	1.2	1.0	荷兰	3.6	3.0	3.5	2.9

國 名	國防支出 對 GNP %				國 名	國防支出 對 GNP %			
	1968	1969	1970	1971		1968	1969	1970	1971
로 데 시 아	1.9	2.0	1.7	1.8	리 비 아	1.6	1.4	2.1	2.6
남아프리카	2.5	2.4	2.6	2.4	모 록 코	2.8	2.5	2.5	2.8
濠 洲	4.6	4.0	3.6	2.9	사우디아라비아	8.9	8.8	9.4	8.9
마	3.7	3.8	3.3	2.9	수 단	5.0	5.7	6.0	7.4
台 灣	7.2	9.2	8.8	9.8	시 리 아	12.1	11.6	12.1	9.8
印 度	3.6	3.5	3.4	3.4	투 니 시 아	1.5	1.4	1.5	1.5
印 尼	1.8	3.2	2.3	2.2	에치오피아	2.2	2.2	2.1	1.4
日 本	0.8	0.8	0.8	0.7	나이지제리아	5.9	5.9	5.6	2.5
유 고	6.0	5.6	5.4	4.7	韓 国	4.2	4.0	4.0	5.1
알제리아	4.7	4.4	4.0	2.1	馬 来	3.9	3.6	4.6	4.3
아 략	12.5	13.0	19.6	21.7	뉴지랜드	2.0	1.9	2.0	1.7
이 란	5.6	5.0	7.1	8.5	파키스탄	3.4	3.4	3.8	4.2
이 락	9.1	9.6	9.4	6.5	피 리 핀	1.6	1.5	1.9	1.8
이스라엘	15.4	24.1	26.5	23.9	싱 가 폴	2.1	4.9	5.8	6.3
요 르 단	14.7	21.0	16.4	11.3	泰 国	2.5	3.7	3.9	3.9

国名	国防支出 对 GNP %			
	1968	1969	1970	1971
越南	12.5	23.7	25.7	12.0
아르헨틴	2.0	2.2	2.3	-
브라질	2.6	1.9	1.7	2.5
치리	2.1	-	-	-
코롬비아	2.8	-	-	1.2
멕시코	0.6	0.6	-	0.7
페루	3.3	-	-	-
베네즈에라	2.2	-	2.6	2.4

위 統計에 依하면 美·蘇兩國을 除外하면 事業費가 每年 增加한 地域은 東北亞地域과 中近東地域임을 알수가 있다. 이것은 軍事的인 緊張地帶가 바로 이러한 地域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地域에는 美·蘇라는 核雨傘이 뒷받침되어 對立되어 있는 關係로 緊張이 慢性的으로 持續되고 있는 形便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緊張을 줄이기 위해서는 貨幣面으로써 軍事費가 GNP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自律적으로 이루어지느냐 不然이면 周邉의 強大國들의 措置에 依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이다.

그러나 저어도 東北亜地域에 있어서는 向後 5 年을 前後해서 減少되는 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地域에 있는 나라들의 國內外的인 條件이 그것을 要求하기 때문이다.

勿論 이 地域에 있어서도 日本의 경우와 中共의 경우는 增加될 것으로 判斷된다. 그 理由는 日本은 그 동안 軍事費가 GNP 에 서 차지하는 比率이 너무 낮았던 關係로 現在 日本政府의 公式的인 發表에 依한다면 적어도 1 %線까지는 增加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中共은 強大國이면서도 위에 指摘한바와 같이 그 軍事能力面에서는 低調한 形便이다. 特히 中共은 核保有國인 蘇聯의 威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核武器를 비롯한 各種武器體系의 開發에 따른 軍事力의 現代化라는 當面課題의 解決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第3章 아시아戰略情勢判斷

第一節 不確定要素

아시아地域에 있어서 主要諸國의 影響力의 作用과 反作用이 多角的으로 展開될 것이라 展望하는데 대해서 疑問을 갖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情勢推移를 一方的으로 斷言하기에는 많은 難點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地域의 將來情勢가 特定國의 現在 意圖와 希望에 따라 條件賦與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地域에서의 主要役割을 担当할 것으로 予想되는 國家들의 次期政策方向 中에 不確定한 要素가 內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諸國間의 作用과 反作用의 樣相도 變化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아시아地域情勢를 長期判斷함에 있어 支配的인 不確定要素로서 思慮되는 것을 列挙한다면 다음과 같다.

1. 向後 10年 동안에 美國의 對外政策이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닉슨」大統領의 美國의 海外利益에 關한 定義는 前任大統領의 그것보다도 뚜렷함에는 틀림이 없으나 議會指導者 및 一般國民의 關心은 날이 갈수록 國內問題에 集中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 多額의 國防費 및 對外援助費에 對한 議會의 強力한 抵抗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닉슨」大統領이 提示한 對外政策이 앞으로 一般國民이나 議會로 부터 繼續的으로 支

持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2. 둘째의 不確定要素는 蘇聯의 對外政策에 關한 問題이다. 戰略核戰力을 強化하는 한편 海軍力을 擴張하여 全世界에 對한 關心을 갖게 한 蘇聯이 앞으로 好戰的이며 自國中心主義的으로 될 것인가 不然이면 柔軟한 姿勢로서 主要諸國들과 協調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疑問이다.

셋째 中共의 影響力問題이다. UN 安保理事會의 常任理事國으로 登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國交를 正常化한 強大國으로서의 中共의 外交政策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點이다. 西方諸國에 對한 敵對視, 蘇聯에 對한 抵抗 및 第3世界에 있어서의 指導的 役割 担当試圖等과 같은 中共의 姿勢가 變化될 것인가는 매우 予測하기 어려운 問題들이다. 「포돌」將軍은 「닉슨」大統領의 訪中計劃이 發表되기 1年前에 中共柔軟化可能性을 說明하면서 革命的 英雄主義를 狂信하고 있던 一般大衆이 經濟主義를 覺醒하여 日本과 接近할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預測한데 對하여 「바칸」教授는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과 그에 즈음하여 發表된 聲明은 中共의 對外政策의 轉換을 두렵이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美國政策의 새로운 展開徵候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보돌」將軍은 中共經濟가 本軌道에 오르고 核戰力이 完成되는 時期야 말로 戰略的 轉換期가 될 것이라면서 中共의 遠大한 戰略的 새로운 展開를 20世紀末頃으로 展望하였다. 이에 對하여 「마러이」

教授는 앞으로 5~7年後에 中共이 美·蘇에 對하여 有効한 第2 加面力을 갖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닛제의 不確定要素는 日本의 姿勢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 이다. 日本이 앞으로 美国, 中共 및 蘇聯等의 3大強國들과의 關係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및 軍事的으로 어떠한 關係를 具體化 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對해서는 未知數인 것이다. 日本은 그 尙大한 經濟力과 그에 必然的으로 付隨되는 對外影響力과를 어떠한 目的으로 또한 어떠한 方法으로 行使할 것인지도 疑問인 것이다.

위에서 指摘한 諸不確定要素는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長期的 戰略情勢를 判斷함에 있어 매우 重要한 것이 아닐수 없다. 特히 이러한 不確定要素는 따지고 보면 아시아地域의 戰略情勢를 左右하 는 要素이기도 한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不確定要素가 어느 方向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戰略情勢는 크게 左右되는 結果를 가 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戰略情勢上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特徵的인 要素가 있는 것만이 틀림없다. 아시아地域 에 있어서 4大強國의 各己의 政策과 姿勢는 多少間을 莫論하고 다른 3個國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60年初期 以來 아시아地域의 戰略的 均衡은 多角的이었던바 蘇聯, 中共 및 美国間의 3角關係를 取하기 시작하였다. 1970年代 以後 日本이 이에 參與하게 됨으로써 3角關係는 4角關係로 變質하기 시작하였 다.

아시아地域에 多角關係가 形成되고 있었던 것은 반드시 70年代의 일은 결코 아니다. 이미 19世紀末以來에 이러한 關係는 形成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늘날의 것과 比較할 때 큰 差異點이 있다. 즉 當時의 主役의 力学關係는 오늘 날의 그것과 매우 다르며 中國과 蘇聯은 日本이나 美國에 比하여 그 힘에 있어서 微弱한 것이었다. 特別히 注目할 事實은 오늘날의 主役들의 戰略能力-軍事力, 經濟力 및 人口數等-이 크게 增大되었다는 點이다. 그러나 새로운 戰略的 均衡의 性格은 主役과 그들의 同盟諸國이 가장 緊要하다고 보는 것이 어떠한 戰略能力인가에 따라 크게 左右된다는 것이다.

多角的 均衡이라는 用語는 19世紀中葉以後의 유럽諸國間의 相互 關係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政治 및 軍事面에서의 힘의 支配的 要素라는 前提가 提起되기 일수이다. 그러나 오늘 날에 있어서의 戰略的 均衡要素는 이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複合的인 要素가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 4角關係에 있어 가장 支配的인 役割을 앞으로 担当하게될 要素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萬一 그것이 戰略核戰力이라고 한다면 美國과 蘇聯은 中共에 比하여 越等하게 強力한 地位에 있을 것이며 日本의 地位는 無視되어도 無妨할 것이다. 또한 在來式 軍事力-特別히 地上兵力이 主要한 役割을 한다면 美國은 中共이나 蘇聯에 比하여 弱勢일 것이다. 한편 核武器가 凍結되고 紛争도 激化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經濟的

影響力이 重要性을 增大할 것이며 따라서 日本의 地位는 높아지는
反面에 中共은 最下位에 머무르게 될것이다. 끝으로 「이테올르기」
가 最優先視된다면 中共의 位置는 相對的으로 높아질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經濟力 또는 精神戰力이 戰略的 均衡의 重要한 要素가 된다는
것은 勿論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찌기 「루덴돌프」將軍의 國家
總力戰論은 이러한 戰略思想의 한 例이며 그보다도 앞서 있었던
獨逸의 戰略研究家 「하우스호파」將軍이나 「반베」教授는 「擴大戰
略」을 主張하면서 經濟手段이나 革命使賊을 軍事力과 併用할 것을
提唱하였다. 英國의 戰略家 「리멜·하트」는 「間接戰略」을 軍事力
에 依한 戰爭遂行에 앞서 行使할 것을 主張했으며 「레닌」은 革
命을 위한 充分한 整地作業이 이루어진 後가 아니면 戰爭을 開始
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하였다. 現代戰略의 特質은 이러한 힘의 作
用이 顯在化하기 以前에 큰 影響力을 갖는다는 것이다.

要컨데 戰略核戰力은 앞으로 決定的 役割을 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地域에서는 유럽地域에서 보다 더욱 그 役割이 減少될
것이라는 것이다.

第2節 軍事情勢判斷上의 考慮要素

1. 앞으로 10年間 또는 그 以後에 있어서도 아시아 地域에
있어서 戰略的 均衡에 關与하게 될 國家는 美國, 蘇聯, 中共

및 日本等 4 個強大國일 것이다. 勿論 이 地域에는 印度와 같은 潜在力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나 自國領土以外에 影響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2. 西歐諸國은 20 世紀初에 英國, 프랑스, 獨逸 等이 介入했던바 와 같이 아시아地域의 勢力均衡에 直接的으로 關与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시아地域의 勢力均衡이 美國 및 蘇聯의 對 유럽政策에 影響을 미친다는 理由로서 西歐諸國은 間接的인 關係를 갖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西유럽을 構成하는 여러 國家들은 유럽共同體와 아프리카, 中東 및 東歐地域等에서의 國家利益의 制度化와 防衛가 急先務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地域 政治에 깊이 關与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아시아地域에서의 美國의 國家利益이다. 지난 數年동안에 美國의 對外的 關心의 縮少와 重點化가 進行된 過程과 國防支出에 對한 抵抗의 高潮, 國內問題解決을 要求하는 壓力의 增加等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世界政治 및 經濟等을 비롯한 全體構造에 있어 主導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關係로 美國이 過去와 같은 孤立主義로 되돌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考慮된다. 그러나 유럽地域에서는 經濟的 및 軍事的인 關与를 急激하게 縮少하지 않을 것이나 아시아地域에서는 美國軍事力의 顯著한 減少가 進行될 것이다. 아시아地域內서 東北亞地域과 東南亞地域에서 減軍을 美國이 斷行하

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유럽戰略家들의 見解이다. 왜냐하면 美国自體의 領土가 太平洋에 까지 擴張된 關係로 中共 또는 日本의 直接的인 威脅을 받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美国은 아시아地域 全體 秩序에 對한 責任担当에서 後退하고, 아시아地域에서의 中核的인 나라들에만 關心範圍를 限定시킬 것이다. 例를 들면 美国이 日本에 關心을 가짐으로써 모든 面에서의 調整이라는 귀찮은 問題가 提起됨에도 不拘하고 日本이 西方側의 政治, 經濟, 貿易 等 各分野 體制로 부터 離脫되는 것을 防止한다는 것이 美国의 國家利益으로 美国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過去와 現在를 比較해 볼때 美国이 이러한 國家利益을 위하여 行使하는 手段이 달라질 것이다. 즉 危機가 發生했을 경우 美国은 直接的인 介入을 꺼려할 것이다. 그 理由는 美·蘇間의 核戰略能力이 對等하게 되었다거나 中共의 核戰력이 開發되었다거나 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太平洋을 건너 兵力을 派遣, 或은 配置시킨다는 것에 對하여 美国國民이 反對하는데 있는 것이다. 아시아地域의 戰略的 均衡에 있어서의 美国의 役割은 앞으로 더욱 外交的 經濟的 影響력에 重點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蘇聯은 美国과의 戰略的 對等성을 達成하였다. 中東 및 印度等, 아시아 大陸의 一部에 蘇聯은 根拠地를 確保함으로써 數年前부터 西方側의 封鎖를 除去해 나가고 있다. 繼續的인 海軍戰略의 強化로써 蘇聯은 全世界의 影響력을 미칠수 있는 有効한

外交의 財産을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蘇聯은 第2次大戰의 戰果인 유럽의 支配地域에 關하여 現狀維持體制의 既定事實化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아시아地域은 蘇聯이 가장 操心스럽게 발판을 構築해야 할 地域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中共과 長距離에 걸친 陸上國境線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치열한 對立關係에 있는바 실혹 蘇聯이 柔軟한 姿勢로 臨한다 하더라도 中共의 憎惡心を 緩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中共과의 對立關係가 大規模熱戰으로 發展되는 것을 蘇聯은 極力 回避할 것이다. 蘇聯은 對中共關係를 有利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間接的 手段을 活用할 것으로 보인다. 印度·파키스탄戰爭때 나타난 蘇聯의 戰略은 間接的 手段의 한 代表的 例가 된다. 또한 蘇聯의 日本에 對한 最近의 態度變化도 中共에 對한 蘇聯의 間接 戰略의 一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5. 아시아地域의 戰略的 均衡에 있어서 中共은 그 比重을 높여 가고 있다. 中共은 經濟的 立場에서 보면 4大強國 가운데 最下位에 屬하고 있으며 따라서 中共 스스로 世界最大의 開發途上國임을 自勉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의 經濟政策은 嚴格한 優先順位에 따라 統制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中共은 巨大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그 軍事力이 地域戰爭을 遂行할 수 있을 程度의 것은 아니다. 中共은 戰略核戰力을 增強시키고 있는바 美蘇兩大國의 것에 比較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影響力은 實際能力을

上回하고 있다해도 過言은 아니다. 中共은 對外影響力의 主要한 原動力은 어떻게 해서 開發途上國이 美蘇超大強國의 支配體制로 부터 離脱하는 가에 模範을 보인다는 것이며 가난한 나라가 嚴格한 中央統制와 「이데올로기」로서 自立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中共은 蘇聯을 敵對視하게 됨으로써 徐徐히 美國과의 接近을 試圖하고 關係正常化를 摸索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中共의 對美敵對性이 完全히 一掃된 것은 아니다.

中共은 美日關係를 離間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蘇聯,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 自主性을 確保한다는 것에 外交政策의 重點으로 삼고 軍備를 繼續 強化해 나가는 한편 國際聯合을 最大로 利用하며 第3世界의 精神的 指導國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台灣問題, 中蘇國境問題를 除外한다면 中共은 領土擴張의 意圖를 갖지 않을 것이다.

7. 美·中共關係의 調整 및 國際通貨體制에 對한 美國의 一方的인 行動으로 말미암아 國家威信이 損傷되었으며 또한 日本의 工業製品이 容易하게 西方市場에 接近할 수 있었던 時代는 終止符를 찍게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諸般事態에 對한 日本의 獨自의 外交政策의 展開는 制限的인 것이다.

또한 中蘇紛爭의 激化에 對하여 日本國內關心은 그다지 높은 便이 아니나 이 紛爭이 戰爭으로 發展하는 경우 日本은 심던 仲介間에 積極的인 役割을 擔當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日本에 있어서 經濟的 繁榮이 繼續되는 限 保守黨인 自民黨은 議會에서 多數議席을 차지함으로써 繼續 執權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破綻에 直面된 경우 直刻의으로 野黨勢力이 增大되어 國粹主義的인 方向으로 輿論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경우 美日安保條約은 空文化되고 美國, 蘇聯 및 中共과 等距離外交를 展開한다는 口實으로써 日本은 孤立化에의 危險한 길을 밟게 될 可能性이 있다. 日本이 經濟的 繁榮을 持續시키기 위해서는 主要投資先인 濠洲를 비롯한 東南亞諸國의 政治的 安定에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同時에 輸出市場의 維持, 擴大에 努力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第 3 節 戰略的 均衡의 諸模型

上記한바 不確定要素와 考慮要素等을 前提로 向後 10年 동안에 美國, 蘇聯, 中共 및 日本等 4個國이 戰略的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어떠한 關係를 맺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關係는 어떠한 條件에 依하여 成立될 수 있을 것인가를 檢討하고 그것이 아시아地域의 戰略情勢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올 것인가를 評價하고자 한다.

1. 4個國의 無條件協調 (Concert of all great powers) :

이것은 理想主義的인 緊張緩和論者라던가 非武裝中立論者가 夢想하는 世界像인바 따라서 實現可能性은 現實的으로 거의 稀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日本, 蘇聯 및 中共의 協調體制 (Japanese-Soviet-Chinese entente) :

美國에 對抗하기 위하여 蘇聯, 中共 및 日本이 接近하여 協調體制를 形成한다는 模型이다. 中蘇同盟復活에 關한 假定은 (7) 項에서 說明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日本의 參與 可能性의 有無가 問題가 된다. 「보풀」將軍은 中蘇同盟의 復活은 오히려 美日兩國의 紐帶를 強化하는 結果가 될것으로 評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간」教授는 이러한 模型의 現實化는 있을 수 없다고 断定하고 있는 것이다.

3. 美日關係는 破壞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美國이나 日本이 모두 中共 및 蘇聯과 現狀以上으로 接近한다던가 結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模型:

이는 美國, 中共, 蘇聯 및 日本等 4大強국이 等距離關係에 있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情勢의 出現은 적어도 日本이 有効한 核戰力を 保有하고 있지 않는 限에는 想定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萬一 日本이 反美運動과 더불어 民族主義의 高揚을 推進하고 等距離外交政策을 強行한다면 日本은 孤立化의 危險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日本은 憲法을 改正하고 이른바 過小國防을 止揚하여 核武器를 비롯한 各種 武器體系의 增産을 戒함으로써 輸出市場의 상실에 따른 失業者들을 吸收할 것이며 나아가서 軍事力 特히 海空軍力을 大幅的으로 擴張하고 現代化할

것임에 틀림없다.

4. 美日關係, 美蘇關係를犧牲시키고 美中共間的 새로운 協力關係를 形成하는 模型 :

이러한 模型이 現實化될 可能性이 없다는 것은 美國의 政治責任者들이 強調하고 있는 事實로서도 짐작이 된다. 將來의 問題로서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美國으로서는 支拂해야 할 代價가 크기 때문에 可能性이 稀薄한 것이다.

「보폴」將軍은 美蘇兩國이 現狀보다도 離反하여 抗争하는 狀況이 벌어진다면 美國이 中共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美國이 日本을 拋棄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日本도 自進하여 美中共側에 加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5. 美, 日, 中共의 協調體制 :

萬一 蘇聯이 全世界的으로 國家利益을 追求하여 露骨의으로 挑戰的인 態度를 取한다면 이 模型의 現實化가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面에 있어서는 이 模型의 現實化는 事實上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6. 美, 中, 蘇의 協調體制 :

日本을 封鎖하기 위하여 美國, 中共 및 蘇聯이 協調한다는 模型이다. 「M·칸」教授가 「21世紀는 日本의 世紀」라고 말한바

와 같이 日本이 놀라울 程度로 膨脹해 나가고 日本의 野心이 露骨化된다면 이 模型의 現實化 可能性을 排除할 수가 없을 것이다.

美蘇兩超大強國의 協調에 依한 分割支配體制는 앞으로도 維持될 것인바 따라서 美蘇協調體制에 中共이 加担한다는 것은 戰術的 意味에서는 몰라도 長期的으로 볼때 그 可能性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中蘇同盟의 復活 :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日本의 經濟力을 封鎖시키며, 이 地域에서의 西方側의 影響力을 永久히 除去하려는 것이 이 同盟의 目標이다. 지난 10年동안에 있어서 蘇聯과 中共의 指導者들 가운데에는 이 政策에 對한 支持者들이 없는바는 아니었다. 蘇聯에 있어서는 軍人들이 그 代表的 支持者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蘇關係의 龜裂狀態를 理解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蘇聯側이 이것을 받아들일 用意가 있다. 하더라도 中共이 이에 応하지 않을 것이다.

8. 美蘇兩國의 協調體制의 強化 :

SALT의 進展이라던가 越南을 비롯한 아시아諸國에 있어서의 兩國의 競合關係를 調整하는 兩國會談의 進展에 따라 美蘇兩國의 協調가 더욱 強化되고 兩國에 依한 世界支配體制가 維持되는 한편 中共의 核武器를 無力化시키고 日本의 過度한 抬頭를 저지하려는 경우 想定되는 模型이다.

美蘇兩國의 協調體制가 長期的으로 安定化되어 維持될 것으로 評價하는 理由는 兩國의 國家的 關心이 根本的으로 差異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實은 兩國의 國家利益의 性格은 一脈相通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中級國家가 兩超大國과 等距離에 位置할 수 없는 理由도 바로 美蘇兩國에 共通되는 國家利益의 性格에 있는 것이다. 즉 兩超大國은 各己의 勢力範圍 - 影響圈 - 의 現狀을 서로 尊重한다는 것에 了解가 成立되고 있으며 이 分割支配體制가 崩壞된다는 것을 美蘇兩國 共히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美蘇協調體制가 더욱 強化된다는 模型이 現實化되는 경우 提起되는 問題點을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共이 이것을 가르켜 美蘇兩國의 共謀 乃至 結托이라고 主張하고 나아가서 中共은 敵意를 더욱 強化할 것이며 또한 아시아地域을 위시한 第3世界에서의 從前까지의 分斷政策을 더욱 推進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美蘇結托의 模型이 意味하는 것은 아시아地域에서의 局地紛爭이 發生했을 경우 國際聯合을 위시한 여러 舞臺에서 美蘇兩國이 廣範圍한 共同步調를 取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랍 - 이스라엘戰爭의 調整, 越南戰終結을 위한 對話等の 例에서 본다면 美蘇兩國이 共同步調를 取한다 하더라도 地域勢力의 活動에 對한 超大強國의 影響力은 그다지 큰 役割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美蘇協調는 主로 兩國의 安全保障과 自身의 살아남는 問題가 主眼點이며 어떤

特定地域을 共同支配하는 目的에 限定되는 協定內容이 될수는 없다.
그러나 例外가 있다면 그것은 유럽地域에 關한 協定일 것이다.

9. 美, 蘇, 日의 協調體制 :

이것에 依하여 中共勢力을 封鎖하며 主要工業國으로서의 共通利
益을 追求한다는 模型이다.

美國에 依한 安全保障의 恩惠를 繼續 享有하며 그 위에 蘇聯의
原材料資源과 輸出市場에 接近할 수 있는바 日本으로서의 바람직한
模型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中共의 態度를 硬化시킨다는 不利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日本은 中共과 國交正常化를 妥結하였음으
로 이 模型의 實現性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日, 中共의 協調體制 :

美國은 東아시아에서의 役割을 縮少하고 蘇聯은 南아시아 및
其他地域에서의 中共勢力을 封鎖한다는 模型이다. 이 模型의 戰略
情勢가 日本에 매력적인 것은 起源을 같이하는 日中文化가 再結合
되며 中國大陸의 原材料資源에 接近하고 日中共間에 가로놓여 있는
大陸棚의 石油資源을 開發하고 台灣과 韓半島의 將來에 關한 協定
을 締結하는데 매우 有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은 中共의 戰略的 壓力에 弱한 以上으로 蘇聯에 對
해서 脆弱하며 따라서 日, 中協調體制가 排他的으로 強化된다는 것
은 日本으로서의 利益보다는 危險이 더 클 것이다.

11. 日, 蘇의 協調體制 :

日本은 「시베리아」 開發에 熱中하게 될 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蘇聯은 日本의 耐久消費財를 위한 좋은 市場이 될수 있을 것이다. 美國을 비롯한 西유럽諸國이 日本의 經濟 進出에 對해서 날이 갈수록 敵對視한다면 이 模型의 現實化 可能性이 높다. 萬一 經濟 協力關係가 促進되어 日本이 蘇聯과 政治的 同盟關係를 맺게 된다면 매우 重要한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萬一 이 模型이 實現된다면 아시아地域의 戰略的 均衡은 第1義的이며 決定的인 轉換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資源의 開發, 工業製品의 販路라는 觀點에서 中期的으로는 蘇聯이 日本과 協調關係를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과의 關係의 長期的 展望 限界內에서 큰 轉回를 期待할 수 없다.

12. 修正된 現狀維持體制 :

이 模型은 가장 바람직한 아시아情勢의 方向이라고 「A·마칸」 教授는 말하고 있다. 이 模型은 現存의 同盟關係의 存続을 前提로 하면서도 4大強國은 아시아地域에 있어서 自國의 恣意的인 政策追求를 止揚하고 繫示的으로 相互間的 第1義的 國家利益을 認定하는 것이다. 例하면 戰略的으로 韓國, 日本, 比律賓, 濠洲 및 뉴질랜드 등의 安全保障과 民主安定을 美國自體의 安全保障과 直結됨으로 美國의 直接的인 國家利益이라는 것을 關係國이 合意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印度亞大陸의 安全保障은 蘇聯의 直接的인 關心對象이며 國家利益이라는 것에 合意하는 것이다.

이러한 諸地域의 사이에 있는 아시아地域의 발칸이라고 할수 있는 東南亞의 諸小國에 對해서는 아시아戰略均衡을 構成하는 4大國이 모두 政治的, 經濟的인 關係를 맺을 수 있으나 支配해서는 不된다. 즉 泰國이나 馬來이지아를 支配하려는 國家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3個國에 對한 敵對行爲가 아닐수 없다.

이 模型의 아시아地域에서의 戰略均衡은 美國의 立場에서 볼때 利得이 될 것이다. 즉 첫째 美國의 主要影響圈과 接觸하지 않게 됨으로써 兩超大國이 衝突할 危險性이 減少될 것이라는 點이다. 美日安保條約이 存続될 것임으로 日本이 急速하게 軍備를 強化한다. 든가 또는 核武裝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東南亞의 經濟的, 政治的 發展過程을 위해서 寄與하며 아직도 이 地域에 國家利益을 確保하고 있는 西方유럽主要國으로 하여금 繼續 關與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美國의 立場에서 이러한 利得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美國은 어려운 政策決定은 選擇이 隨伴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즉 中共이 美日關係를 離間시키려는 意圖가 없으며 最少限 美日關係의 現狀維持를 認定할 必要가 있으나 이것은 또한 美國이 台灣을 中共에 復歸시키고 泰國 및 越南으로 부터 美軍兵力을 撤退시켜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SEATO를 事實上 弱화시키는 結果가 된다.

그러나 美國以外的 3 國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選擇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蘇聯은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의 利益 印支半島에서의 中共의 利益의 正當性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은 台灣의 中共復歸를 認定할 뿐만 아니라 東南亞와의 經濟關係에 있어 自制를 必要로 하고 있다. 中共은 自己大陸으로 看做하고 있는 地域에서의 3 國의 恒久的 國家利益의 正當性을 承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影響力行使에 있어 諸國의 政府顯覆에 作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困難과 障礙가 있다 하더라도 이 模型의 戰略均衡은 關係諸國이 目標로 해야 할 가장 現實的인 것이며 아시아地域에 있어서 霸權없는 秩序를 推進하는데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4 大國의 多角的인 勢力關係는 願하던 願하지 않던 間に 아시아地域에 나타나고 있는 중심으로 4 國의 모든 指導者들은 이 勢力關係를 安定시키기 위한 條件을 慎重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競爭을 制限하며 利益追求와 自制와를 適當하게 調和하는데 있어 關係諸國間에 共通된 思考方式과 態度를 조성하거나 相互交涉에 依하여 이것을 發見해 내야 한다.

이러한 安定된 情勢를 創造해 내는 데는 매우 長期間을 要한다. 그러나 最近 커뮤니케이션手段이 發達되어 있으며 또한 中共도 UN에 加入하여 共通의 討議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4 國의 合意가 成立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第4章 南北韓軍事狀況

第1節 韓國의 軍事狀況

1960年代 後半으로 부터 1970年代 初에 이르는 期間동안 韓國의 軍事狀況을 特徵지 운다면 軍事的 非美國化政策에 따른 韓國의 自主國防態勢整備를 爲한 過渡的 段階에 處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69年 7월에 宣言된 「닉슨 닥트린」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軍事的 非美國化 政策을 表明한 것으로 이것은 ①有事時 美國의 支援公約 ②駐韓美軍의 減縮 乃至는 完全撤収 ③이를 補完하기 위한 裝備現代化의 支援 ④軍援의 漸進的인 減少 等으로 發展되었다.

美國의 對韓防衛支援公約의 基本立場은 「韓美防衛條約에 依한 美國의 責任은 履行하되 韓國의 安全保障은 其次的으로 韓國自身이 責任적야 한다.

오늘날 韓國은 自身の 安保를 爲하여 더 많은 負擔을 担当할 수 있으며 가까운 將來에는 이를 全的으로 負擔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될 것이다」고 表明함으로써 美國은 早速히 스스로의 힘으로 安保를 責任질 수 있도록 一定期間의 援助와 裝備現代化計劃의 推進을 支援하면서 漸進的으로 韓半島에서 責任을 縮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과의 既存關係를 보아 將次 美國의 利益을 위해서도 韓國에 對한 어떠한 侵略事態가 發生하였을 때는 決코 韓國을 拋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防衛公約의 遵守를 위하여 美國은 美軍의 戰略的 再配置를 通해 美國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支援할 態勢를 갖추므로서 直接的인 抑制役割을 担当한다는 것과 責任있는 政策決定水準에서의 公約遵守決意宣言을 通하여 이를 確認 強調함으로써 間接的인 抑制效果를 期待하는 政策을 併進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政治的 感覺이 強한 對韓防衛公約과 剛明과는 달리 美國은 對外的인 軍事的 役割의 縮少方針에 따라 海外駐屯兵力을 繼續 減縮해가는 一環으로서 1971年3月 韓國에서는 美地上軍 1個師團이 撤收함에 이어 韓國軍이 休戰線 警備를 全担하기에 이르렀다.

美地上軍의 撤退問題와 關聯하여 美國은 韓國의 安不安感을 解消시키려는 意圖下에서 69年 3月の 「포커스·레티나」大規模 韓美合同空輸演習에 이어 70年 6月~3月사이에는 「골든 드라곤」作戰인 合同上陸作戰을, 그리고 71年 3月에는 「프리덤 볼트」作戰이라 命名한 合同空輸演習을 實施하였다.

이러한 作戰은 韓半島에서 共產侵略이 發生할 경우 美國이 對韓防衛公約을 「有事大量兵力 投入方式」에 의해 지킬 수 있다는 即刻對應能力을 誇示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美國의 遠隔駐留體制에 依한 有事時 地上軍 發進의 問題에도 여러가지 疑問點이 남아 있다.

1.5 戰略의 採択에 따라 美地上軍 兵力水準은 현저하게 減縮되어 美國은 有事時 韓國에 地上軍을 派遣하기가 힘든 實情일뿐만 아니

라 이와같은 地上軍의 戰鬪介入에는 美國民의 支持를 얻을 可能性이 稀薄해지고 있다.

「레이드」前美國防長官의 發言에서도 나타난바 있지만 有事時 美軍事力의 韓國支援은 海·空軍 및 軍需支援에 限定될 展望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美國의 韓國에 對한 軍需支援도 C-5A의 配備不進, 高速輸送船의 開發遲延 및 「아시아」에서의 軍事基地의 縮少로 制約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日本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軍事的 役割에서의 代行을 拒否하고 있으며 韓國戰爭이 再發時 國內基地의 韓國支援을 위한 美軍에 依한 使用態度도 肯定的이라고 볼 수 없다.

駐韓美軍의 一部撤収에 따른 韓國軍 戰力增強을 위한 韓國軍現代化 5個年計劃도 그 實踐段階에 있어서 量과 種類面에서 많은 利制約을 받고 있다.

美國은 例年の 軍事援助外에 5年間に 約 7億5千萬弗에 해당하는 特別軍事援助를 韓國軍裝備現代化를 위해 供與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軍 編成表上의 不足裝備를 메꾸고 老朽裝備를 交替하고 對北韓劣勢裝備를 交替한다는 目標을 提示하고 있지만 韓國軍의 對北韓 軍事均衡에 主眼點이 주어지고 있으며 供與武器도 攻戰用보다는 防禦武器에 置重하고 있다.

1976年까지 裝備現代化 5個年計劃이 目標대로 推進된다해도 北韓의 戰力을 凌加할 수 없는 形便에 있다.

建軍以來 韓國은 美國으로부터 無償으로 約 40億弗의 軍援을 받

아 왔으나 1960년부터 軍援移管이 開始되었고 1970年과 71年에
는 各各 2種의 支援援助가 中斷됨으로써 美國의 對韓軍援은 漸次
減少一路에 있다.

더우기 美國은 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發 可能性의 稀薄 및 韓國
의 軍事費負擔能力의 向上이라는 판단과 韓半島緊張의 緩和 및
韓國軍減縮을 중용하기 위한 政策的 考慮로 美國의 對韓軍援을 減
少시키고 있다.

72年 4月 「로저스」 美國務長官은 韓國軍 現代화가 끝나는
1976년부터는 모든 軍援을 有償으로 轉換할 것이라고 言明한 바
있다. 이러한 援助 때문에 韓國의 國防費負擔은 北韓에 比하여
意外로 낮은 比率을 보였다.

英國戰略問題所가 推定한 바에 依하면 1971年의 GNP에 對한
國防費比率은 北韓이 54.0%인데 反하여 韓國은 5.1%로 낮았으
며 1人當 國防支出額은 北韓의 51弗에 比하여 韓國은 13弗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北韓의 國防費負擔의 重圧과 韓國의 自体
國防費 負擔의 增大向方은 南北間의 體制競爭에서 各各이 解決해야
할 國內 主要問題이기도 하지만 長期的인 面에서는 南北間 軍縮交
渉의 經濟的 動機를 提供할 수 있는 側面도 지니고 있다고 보겠
다.

1960年代 後半부터 露骨化된 北韓의 軍事攻勢는 韓國의 自主的
國防態勢의 樹立을 促求하였다.

韓國戰 卽後부터 北韓이 노렸던 間接侵略의 与件・造成 努力이 成果가 없음을 깨닫고 66년부터 <暴力, 非暴力의 配合을 비롯한 多様な 鬭爭形態>를 내세워 武裝間諜의 浸透를 꾀하여 오다가 68년에 이르러 그 挑發이 大規模化되었다.

68년의 1.21事態, 11月の 蔚珍, 三陟共비 浸透事件 等 大胆하고도 戰爭挑發에 가까운 武力侵入을 試圖하였다.

또한 同年 1月23日 美海軍 「푸에부로」号 被擊事件等の 解決을 위한 美國의 對北韓態度가 強大國으로서는 納得키어려울 程度로 低姿勢이자 韓國政府는 通常의 武力挑發에 對한 防備는 全的으로 韓國의 自主的 力量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음을 切感하게 된 契機가 되었다.

北韓의 武力挑發과 後方混亂 그리고 서울大民族 比較硏究會 事件, 「베르린」 間諜事件 및 統一革命事件 等 大規模 政府顛覆 陰謀를 위한 間諜事件의 摘發과 檢拳선봉은 우리政府로 하여금 休戰線防衛를 위한 國防과 後方の 安定을 爲한 治安의 問題를 總力 安保라는 次元에서 強化하기 始作하였다.

全面戰爭에 對備한 戰略施設의 地下化 全戰線과 重要施設의 鐵軌化, 全海岸의 監視網構成 等を 비롯하여 首都國防衛를 위한 築城工事, 高速艇基地建設等이 이루어져 敵의 侵入에 對한 防備를 強化하였고 後方の 防禦를 위해서는 郷土豫備軍이 組織되어 그 彈力化에 努力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우리政府는 自主國防의 實質的 能力을 갖추기 위한 軍需産業의 育成에 拍車를 加하였다.

1976년에 終了되는 第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에 防衛産業의 基礎가 되는 重化學工業을 育成하여 自主國防의 土臺를 構築하고 第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自由國防의 態勢에 突入하여 80年代 以後 實質的으로 自主國防의 物的 力量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爲한 基礎作業으로 國防科學技術研究所를 비롯한 研究機關 및 産業企業體間에 緊密한 研究開發體制를 確立하였고 72年度 韓美安保 協議會에서 韓國의 防衛産業計劃과 이의 技術支援을 美例으로부터 確約받았으며 이에 따라 各種 基幹防衛産業 工場의 建設이 推進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基本兵器인 小火器와 그 彈藥生産工場을 建設 및 擴張中이며 70年代 後半에 이르러서 自體의 在來式 武器體系를 具備할 基盤을 構築하리라는 展望이다. 따라서 軍需産業能力은 北韓이 自體式武器體系를 갖출 段階이나, 우리는 그 初步的 段階로서 상당한 期間동안 劣勢를 免치 못할 形便에 놓여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軍事援助의 變質에 의한 有價化와 減縮趨勢 그리고 自主國防態勢의 確立을 위한 諸般施設工事, 予備軍의 強化 및 軍需産業의 育成 등으로 國防費는 1971年度 以後 상당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따라 그 負擔이 減少될 項目도 있겠으나 70年代末까지 自主國防을 指向하는 限 이 增加는 不可避하

리라고 본다. 그러나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두가지 目標을 同時에 追求해야 하는 우리政府의 立場에서는 앞으로 政府財政의 25%以上을 國防費에 投入할 形便이 못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負擔을 덜고 効率的인 軍育成을 위한 方案으로 새로운 精兵強軍政策이 模索되어야할 段階에 놓여 있다.

第2節 北韓의 軍事狀況

北韓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弱極的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金日成의 狂信的 唯一思想을 基盤으로 한 獨裁體制下에 '革命的 大事業을 主動的으로 맞이하자'는 戰爭口號를 露骨的으로 부르짖으면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並進政策과 '軍의 幹部化 軍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라는 所謂 4大 軍事路線의 戰爭政策을 定立하고 이를 強行함으로써 드디어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에서 '戰爭準備의 完了'를 豪言壯談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潮流와 周邊情勢가 平和共存과 緊張緩和의 趨勢로 進辰되자 北韓은 재빨리 이에 迎擊 對峙하기 위한 새로운 對內外體制의 整備를 서두르면서 表面的으로는 南韓赤化의 野慾을 隱晦시키기 위한 平和攻勢를 積極的으로 展開하는 한편 對南關係에 있어서도 60年代 後半에 試圖되었던 露骨的인 武力挑發政策을 一時 中斷 自制함으로써 緊張緩和에 呼應하는 척하면서 內面的으로는

所謂 人民民主主義革命의 与件造成에 狂奔하면서 所謂 決定的 時期에 對備한 戰爭準備政策을 施行시켜왔다.

全人民의 武裝化措置로서 北韓의 모든 住民은 武器操作方法과 射擊方法의 訓練을 習得하고 있다. 그리고 140 餘萬에 이르는 勞農赤衛隊 (教導隊 包含) 에게 小銃 100%와 公용화기 50%를 支給하고 重武裝까지 一部 配當하고 있다. 年間 約 500時間의 訓練을 받은 이들은 2級軍隊의 戰鬥力程度는 충분히 保有함으로써 有事時 輕裝備師團의 編成이 可能하다. 또한 現役軍의 後方支援要員을 新規 女軍으로 補充함으로써 女軍比率을 從前의 倍로 擴張시켰으며 1971年初 勞農赤衛隊의 年令을 45才로 부터 50才로 늘리는 한편 계속 이들의 裝備 訓練 等を 現役軍 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努力이 強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人的인 面에서의 北韓의 軍事力을 40 餘萬이라고 評價할 수 없으며 勞農赤衛隊 붉은 青年近衛隊도 準軍事力으로 看做되며 이는 全人民의 武裝化의 完成을 意味한다.

이러한 予備軍體制는 韓國이 北韓에 比하여 裝備와 動員體制面에서 劣勢를 免치 못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戰爭勃發時, 即刻적으로 20 餘個 戰鬥師團이 編成될 수 있는데 反하여 韓國은 動員令이 下達된 後 45日이 되어야 20 個 防衛師團이 編成되리라고 보고 있다.

北韓은 裝備의 現代化 措置로서 各軍의 裝備를 高度도 現代化하

는 計劃을 推進하여 왔다.

地上軍의 경우 長距離 「로켓트」(Frog-5/7) SA-2 地對空誘導彈 SAMLET 地對地誘導彈 및 對戰車미사일과 戰車 等を 補強하여 速攻을 위한 機動性を 增大시키고 있고 個人 및 公용화기나 重砲 等を 充分히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過去 地上軍의 步兵聯隊級以下 部隊의 主要 輸送手段이었던 牛馬車를 廢棄하고 車輛으로 代替함으로써 輸送能力과 機動力을 大幅 強化시키고 있다.

海軍의 경우 OSA, KOMAR 級 유도경비정의 導入과 快速魚雷艇의 建造 그리고 驅潛艦의 改造 等を 통하여 海上 寄襲能力의 增強을 꾀하는 한편 空軍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Su-7, MIG-21 等の 新銳機와 AN-2 「렐」機 等の 導入 交替로 航空能力의 增強에 繼續인 努力을 기울여 왔다.

全地域의 要塞化 措置로서 前後方 陳地의 坑道化 및 要塞化는 勿論 勞農赤衛隊와의 合同防衛線 및 遊擊地區의 設定, 非常軍事道路의 擴張과 戰略的 後方 基地造成, 重要産業施設의 分散 및 地下化 等 北韓全域을 軍事目的化 시키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여 왔다.

이것은 北韓이 南侵時 失敗했을 때를 對備한 것이라 하겠으나 戰爭이 長期化될 때 그것은 지령할 潛在力이 된다는 點에서 注目을 要한다.

軍의 幹部化 面에서도 北韓은 1階級 上位의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教育 및 訓練시키고 있다.

이것은 戰時에 增編되는 部隊의 運營과 初級指揮官의 所要를 充當하기 위한 措置이다. 따라서 戰時 所要의 迅速한 充員을 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고 있는 바 이는 完了된 狀態라고 判斷되고 있다.

軍需工業能力이라는 面에서도 北韓은 相當한 水準에 이르고 있다. 約 20 個의 武器工場을 保有하면서 彈藥은 勿論이고 小火器(個人·共用) 迫擊砲 등을 生産하여 自給段階에 이르렀고 野砲, 高射砲, 生産에 着手했으며 戰車生産까지 서두르고 있는 形勢이다.

이밖에도 戰爭物資 備蓄面에 있어서는 3 年間の 戰爭에 지탱할 것을 目標로 하여 彈藥·油類·食糧 등은 最少限 3~5 個月分을 各地에 分散 저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 年 11 月의 第5 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南朝鮮에서의 革命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이다 (對南基本戰略)' 라고 規定하면서 이러한 歷史的 革命段階에 適用하는 軍事戰略을 6.25 當時에 採択하였던 現代戰 戰略概念으로부터 6.25 敗北 原因과 越南戰의 教訓 그리고 韓國地形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現代戰과 革命戰爭에 基盤을 둔 正規戰과 非正規戰 配合의 戰略으로 轉換하였다. 卽 '正規戰과 遊擊戰의 配合. 敵背後에 第2 戰線의 形成, 積極防衛와 背後攪亂의 配合, 大小部隊活動의 結合, 集中과 分散' 이라는 極히 多樣하고 融通性 있는 戰略·戰術로서 前方의 效果的인 積極防禦體制와 後方의 人民戰爭體制와의 有機的인 連繫로서 政治와 軍事가 結合된 直接 및

間接侵略에 의한 決定的 時期의 造成과 決定的 條件이 造成되었을 때는 遊擊戰이 結合된 正規戰을 先制 奇襲의 으로 敢行, 南韓을 一擧에 赤化統一한다는 速戰速決主義戰略이다.

北韓은 이러한 對南軍事戰略의 原則을 內外情勢의 주이와 條件에 迎合 適應시키기 위하여 軍의 編制, 裝備, 訓練, 配置 等 全般의 面에 걸쳐 새로히 補強함으로써 人民民主主義革命에 依한 對南 赤化統一의 基本戰略을 더욱 굳기하여 왔다.

編制面에서는 全面的인 正規戰과 遊擊戰의 配合, 그리고 攻勢的인 機動과 徒步特攻을 結合하는 戰略概念에 適合시킬 수 있도록 正規軍의 大幅的인 改編과 增編을 斷行하였다.

即 2個의 後方集團軍을 軍團으로 改編함과 아울러 一部 獨立步兵部隊의 旅團 또는 師團으로의 增編 및 昇格으로 戰團組織의 徹底的인 融通性を 確保하였으며 새로히 渡河工兵聯隊 및 大隊를 增編하고 이를 西部 및 中部地域에 重點 配置함으로써 全面的인 攻勢機動에 對備하였다. 한편 前方集團軍에 編成된 輕步兵旅團과 從前의 特殊部隊을 統合, 編成한 第8軍團을 整備強化하여 正規戰에 配合된 非正規戰의 大的인 展開를 可能케 하였다.

裝備面에 있어서도 地上軍의 경우 奇襲과 攻襲에 有利한 裝備를 下量導入하였다. 即 107 ~ 200 mm 「로켓트」砲 및 FROG-5/7 「로켓트」砲와 SAMLET地對地誘導彈의 導入, T-55 및 T-59 新型 戰車에 의한 旧型戰車의 交替補強과 各種 裝甲車 및 水陸兩用車의 增強, 車輛으로 代置된 輸送手段의 現代化와 機動力의 增強과 最新

渡河裝備의 導入增編이 이루어지고 있다.

海軍에 있어서는 OSA, KOMAR級 誘導雷艇과 快速魚雷艇을 增強하고 驅逐艦과 輸送船 및 上陸舟艇의 建造努力과 旧型艦의 改造等을 통한 海上奇襲能力을 增強함과 아울러 漸次的으로 大型化를 企圖하고 있다.

그리고 空軍에 있어서는 Su-7 및 MIG-21 등의 新銳機와 「헬」機 등의 補強으로 空中勢力의 向上을 圖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은 全面的인 攻勢作戰을 위한 強力한 火力과 機動力의 補強을 그리고 速攻 奇襲爲主의 裝備를 多量 導入한 것은 北韓이 그들의 戰略概念에 立脚한 如何한 形態의 戰爭에도 對備할 수 있도록 그의 武器體系를 크게 現代化시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配置面에서도 70年以後 훨씬 攻勢의이고도 能動的인 態勢로 轉換해가고 있다.

DMZ에 200餘個의 砲陣地를 包含한 重火器陣地와 前哨陣地의 構築을 비롯한 砲兵陣地의 前方推進과 前線後方に 遊擊地區를 設定하고 있다.

海軍基地의 增設과 艦隊待避所의 地下化 그리고 特히 注目을 要하는 飛行基地 및 非常活走路의 前方推進과 大次的인 增設 등은 完壁한 防禦와 連結된 攻勢的 配備로서 先制 奇襲攻襲에 有利한 戰略的 配置임을 알 수가 있다.

以上과 같은 北韓의 軍事戰略과 軍事能力은 決定的인 時期가 到

來하였다고 判斷되었을 때 正規戰과 非正規戰이 配合된 電擊作戰으로 一擧에 南韓地域을 席卷함으로써 友邦支援軍의 韓國到着以前에 戰爭을 終結하려는 速戰·速決主義에 立脚한 武力挑發形態가 될 것이다. 그러나 一面으로는 北韓과 같은 末端까지 統制된 計劃經濟體制에 있어서는 非生産的인 國防部門의 資材, 資金, 勞動力의 投入은 커다란 「마이너스」要因으로 되어 計劃全體의 均衡을 攪亂하고 特別히 輕工業이나 消費財部門에의 壓迫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66年以來 「戰爭必至」라는 危機感속에서 北韓의 戰爭體制의 強化는 一般住民에 對한 精神的 및 物質的 生活와 件의 改善이나 向上을 考慮함이 없이 一方的인 統制와 犧牲만이 마랐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의 忍從과 耐乏에도 限界點이 드러남으로서 이 以上 더 그들의 自然發生的인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欲求를 抑壓 統制할 수 없는 狀況에 處했을 뿐만 아니라 相對的으로 韓國의 높은 生活水準과 競爭해야 할 立場에서 北韓은 不得已 그의 戰爭一刃度政策을 緩和하여 높은 軍事費支出을 줄이고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偏重政策을 調整하는等 住民의 經濟生活改善과 向上을 圖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判斷된다.

第3節 韓國軍事狀況에 提起되는 問題點

70年代以後 展望되는 主要強大國의 軍事狀況과 새로운 對決의 次元에서 展開되는 南北軍事情勢의 動向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의 韓國軍事現況에 提起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面으로 分類 考察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對 外 面

(1)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의 縮小

美國은 對外的인 軍事的 役割의 縮小方針에 따라 海外駐屯兵力을 繼續 減縮해 나가고 있다. 특히 局地戰以下の 紛爭事態에 對해서는 紛爭當事國이 一次 防衛責任을 가져야 한다는 防衛分担原則下에서 美國이 既往에 지켜온 防衛公約에도 實質을 招來하고 있다.

美國은 兵力水準의 삭감계획에 따라 많은 兵力을 韓半島에 長期駐屯시킬 수 있는 實情에 있지 않으며 韓國駐屯에 따른 有事時의 自動介入을 回避하려 하고 있다. 또한 韓半島에 戰爭이 再發하였을 때 美國이 介入한다 해도 海·空軍 및 軍需支援에 限定된 支援을 期待할 수밖에 없다는 點, 韓半島에서 戰爭 발발의 可能性 회박 및 韓國의 軍事費 負擔能力의 向上이라는 判斷과 韓半島의 緊張緩和 및 韓國軍減縮이라는 政策的 考慮에 의한 美國軍援의 減少와 形態變化를 하고 있는 點, 韓國에서의 戰爭재발의 可能性이 적다고 評價하고 있는 美國은 韓國軍의 現兵力水準維持가 韓國의 經濟發展의 지속에 좋지 못한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軍의 兵力水準은 北韓과의 均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韓國 側에 중용할 可能性이 있는 點 등은 既往의 韓美防衛體制 一辺에 치우쳤던 韓國의 客觀的 安保條件에는 重大한 問題點으로 提起

되고 있다.

(2) 「유엔」軍体制의 變化

有事時 「유엔」의 支持 및 支援을 기대하기 힘든 現況下에서 「유엔」軍体制가 變質될 可能性이 濃厚해지고 있다는 것은 有事時에 있어 國際政治上 不利한 戰爭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려운 与件에 直面될런지 모르는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3) 日本의 美國의 軍事的 役割代行拒否와 有事時 美軍의 基地 使用에 對한 態度 未定

日本은 國內政治動向 및 与論, 中共에 對한 刺戟回避, 經濟優先政策下의 東南亞 諸國의 對日警戒의 고려 등으로 亞細亞에서의 非美國化의 進進에 따른 軍事的 役割分担을 拒否하고 있는 點, 有事時에 있어 오끼나와를 포함한 國內基地의 韓國支援을 위한 美軍에 의한 使用을 許用할 수 있다는 態度는 有事時 美國의 迅速한 對韓軍事支援에 支障을 招來할 問題點을 안고 있다.

(4) 反共軍事同盟 創設의 困難性

「아시아」化政策의 進進과 並行하여 一時的이나마 美國에 의하여 容용된바 있으며 非美國化의 對案으로서 自由「아시아」諸國間에 論議되었던 새로운 反共同盟의 創設은 美國의 參與不能, 日本의 反對 소련 및 中共의 平和攻勢와 이에 대한 東南亞諸國의 호응 및 東南亞諸國의 中立化 傾向으로 그 實現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5) 中·蘇의 北韓에 對한 戰爭抑制力의 未知數

소련과 中共은 韓國戰의 재발을 抑制하는 現狀維持政策을 採択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中·蘇紛爭에 따른 北韓에 對한 統制力이 弱화되고 있기 때문에 誤判에 의한 北韓의 全面 또는 制限挑発의 可能性은 現在로서는 排除할 수 없다.

2. 北韓과의 關聯面

南北間의 軍事狀況을 軍事戰略과 軍事能力에 비추어 比較해 볼 때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提起된다.

軍事戰略面에서는 北韓의 独自の인 攻勢과 防禦를 同次元에서 고려한 積極防禦 戰略概念을 가지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은 受動的이며 防禦爲主의 防衛적인 戰略概念을 가지므로서 事實上 独自の 戰略概念이 定立되지 못한 實情에 있다.

軍事能力面에서는 北韓에 對하여 韓國은 ① 地上卓戰鬪兵力의 相對的 劣勢, ② 大口徑火力의 劣勢, ③ 空軍力의 劣勢, ④ 海軍沿海作戰能力의 劣勢, ⑤ 後方地域防禦能力의 未備, ⑥ 對空防禦能力의 不足, ⑦ 軍需産業能力의 劣勢가 南北間 軍事均衡面에 提起되는 問題點이라 할 수 있다.

3. 對 內 面

이러한 對外的, 對北韓關係에서 提起되는 綜合的인 問題點은 窮極의 으로는 韓國内部의 軍事狀況에 提起되는 制約要素이다.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의 縮少와 對亞細亞軍事戰略의 變質은 우리의 自主國防努力에 對하여 軍事的 質, 量面의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첫째는 通常戰以下의 局地戰에 對備해야 할 自主的 國防能力의 培養이다. 이것은 軍事力 使用計劃分野와 運用, 維持 分野의 두가지 側面에서 提起되는 問題로서 ① 既往의 韓美軍事分業體制下에서 設定된 軍備目標, ② 軍備의 使用計劃 ③ 軍備의 運用維持에 새로운 独自の 計劃을 要請하고 있다.

둘째는 自主國防努力의 增大에 따른 國防備負擔能力의 不足이다.

세째는 防衛産業의 育成을 위한 經濟, 科學技術面의 與件不足이다.

네째는 國際緊張緩和에 따른 南北間의 對話增大는 國民의 對共黨 覺心の 解弛를 포함한 國防意識의 低調에 새로운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結 論 및 建 議

冷戰體制下에서의 東西間의 對立은 軍事的 對立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왔다. 美國의 軍事的 優位가 維持되어온 狀況 속에서 東西 兩大陣營은 各各 熾烈한 軍備競爭을 벌려왔고 또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이를 擴張·強化하려는 努力을 繼續해 왔다.

冷戰의 解決과 政治的 多元化라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形成에도 不拘하고, 美蘇를 中心으로한 軍備競爭은 持續되었고 또 軍事的 兩極化의 現象은 그대로 保持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軍事力의 繼續된 增強과 對立이 軍事的 衝突로 轉移되지 않는것은 可恐한 核戰力의 相互抑制作用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年에 접어들면서 本格화된 東西強大國間의 交流, 對話 및 共存關係의 擴大와 政治的 多極秩序의 定立은 世界軍事動向에도 새로운 側面과 意味를 提起하였으며, 이러한 狀況은 1970年代에도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 特徵을 다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美·蘇의 餘他強大國과 比較한 圧倒的 軍事力의 優位는 그대로 維持되거나 오히려 擴大될 것이다. 이미 確保하고 있는 核彈頭, 運搬體制 그리고 技術은 英 仏 및 中共과 같은 다른 核保有國과 軍事的으로 比較되지 않고 있다. 卽美·蘇는 相互間 第1實力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나, 이들의 核戰力은 餘他 核保

有國에 對해서는 여유있는 第1 繼力을 形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狀況이 基本的으로 變化될 展望은 없다.

둘째로 制限된 意味에서의 軍備競爭은 繼續될 것이다라는 點을 들 수 있다. 全般的인 國際緊張의 緩和, 一定水準到達後에 있어서의 核戰力의 累積的 效果의 減少(그리기 때문에 美國도 核戰力의 優位追求에서 充分性의 確保로 戰略을 바꾸었다), 經濟的 負擔의 加重 戰略武器制限에 關한 「모스크바」에서의 第1次의 合意와 SALT의 第2「라운드」, 歐州安保會議 및 MBFR 등의 軍縮努力의 展開等, 強 大國들에게는 軍備를 制限할 수 있는 諸條件이 過去보다 相對的으로 成熟되어가고 있지만 東西間의 基本對立이 完全히 解消되었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現實만 보아도 雙方은 軍備競爭 特히 軍事力의 質的인 強化를 위한 軍事的 努力이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東西兩陣營의 軍事同盟은 全般的인 弱화傾向을 繼續 示顯할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全般的인 國際緊張의 緩和, 民族主義와 自立傾向의 深化를 招來한 政治的 多極化의 擴大, 相互利害關係의 表面化等은 NATO, WARSAW, SEATO, CENTO 등의 多者軍事同盟과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包含한 거의 모든 双務軍事同盟의 相對的인 弱화를 갖어 왔으며 위의 諸要因의 持續 展望은 이들 諸條約 및 機構의 弱화를 더욱 促進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面에서 보면 이들 軍事同盟은 軍事的 性格을 오히려 脫皮하고 政治, 經濟的인 協力體로서의 性格을 길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특히 強大國間의 軍事的 衝突可能性의 低下와 이와 關聯하여 政治目的의 達成을 위한 軍事的 手段의 使用이 더욱 抑制될 것이라는 點이다. 強大國間의 對話와 交涉의 擴充은 政治的 理解와 共存關係를 深化시킬 것이며, 經濟交流의 擴大는 相互間의 經濟的 依存性을 提高시켜 줄 것이며 특히 熱核武器의 保有均衡과 相互抑制作用은 軍事手段의 講究의 無爲性과 可恐性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強大國間의 戰爭勃發可能性은 相對的으로 過去보다 훨씬 減少되었으며 強大國들은 國家의 目標을 達成하고 利益을 守護乃至 伸張시키는 努力의 一環으로 軍事的 手段보다는 外交的 方便과 經濟的 方法을 더욱 重要時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다섯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強大國間의 戰爭勃發可能性의 減少에도 不拘한 弱小國間의 軍事的 衝突可能性의 突存問題이다. 強大國들은 相互間의 衝突回避와 負擔의 輕減을 위해서 局地戰에 直接的으로 介入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避하려 하고 있으며 또 이들의 弱小國家들에 對한 統制乃至 影響도 減少되었다. 따라서 強大國의 直接的인 介入이 없는 通常局地戰의 可能性은 아직 簡單히 排除하기 어려운 現實的인 威脅으로 殘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地域的인 戰爭可能性을 中心으로한 軍事情勢의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戰後에 있어 冷戰의 淵源이 되어온 歐州의 軍事

狀況은 政治的 共存關係의 定立으로 安定趨勢를 示顯하게 되었음에 反하여 새로운 그리고 不安定한 4大國關係가 出發되고 있는 鹿細 鹿地域은 域內國家의 不安定과 流動的인 狀況으로 安定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鹿細鹿地域은 汎世界的인 共存體制의 定立傾向과 歐州의 安定化와는 對照的으로 草率的으로 不安定한 危險地域으로 繼續, 存続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要約된 70年代의 世界軍事情勢의 展望을 韓半島軍事狀況과 함께 評価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對備策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戰略概念을 定立해야 된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우리의 軍事戰略은 基本的으로 冷戰의 狀況下에서 美國側이 立案한 것을 基本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面이 強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戰略이 變化된 國際情勢, 強大國의 韓半島政策과 支援力量, 北韓政策과 能力, 우리의 能力과 契機에 適合한가를 再檢討하여 우리의 戰略을 再定立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作業은 年次的인 修正過程을 通하여 繼續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政治的인 意味에서의 軍縮에 關한 研究를 本格化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를 不問하고 滿足할 수 있는 軍事力의 適正水準이란 保有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水準이 敵의 威脅을 抑制, 沮止할 수 있고 國力의 相應되어야 할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北韓이 南北對話에도 不拘하고 4大軍事路線을 強行하고 있고 또 이미 그들이 蓄積·確保하고 있는 軍事力은 速戰速決

의 軍事挑發을 하기에 充分하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우리의 軍事力은 오히려 補強되어야 한다. 그러나 北이 軍縮提議를(偽裝된 것이지만) 繼續하여 對外的인 宣傳의 效果를 거두기 始作하고, 그 內容과 实效性은 別問題로 하고서라도 汎世界的으로 軍縮을 論議하고 協商하는 것이 流行되고 있다는 現實을 考慮할 때, 우리는 적어도 對北戰爭과 國際的 狀況을 감안한 政治的 意味에서의 軍縮問題(이를 實行하느냐 않느냐는 別個問題)를 研究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研究에 있어 우리는 北韓側이 꺼려하고 受諾하기 힘든 軍縮의 감시를 包含한 具體的인 提案이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그리고 이러한 論議는 南北調節委員會, 「유엔」 그리고 4大強國을 包含한 有関國의 國際會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바, 우리는 北韓에 武器를 供給해 주고 있는 中·蘇가 參與하고 또 韓半島의 軍事의 將來에 있어 關鍵을 쥐고 있는 4大國이 參與하는 有関國間의 國際會議가 보다 有效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려는 努力을 傾注함에 있어, 弱極的이고 直接的인 手段이라고 할 수 있는 軍事手段의 確保·維持도 重要하지만 이와 併行하여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 보다 더 重視되어야 할러지도 모른다), 外交의 手段을 통하여 安保態勢를 強化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北韓으로 부터 軍事的 威脅을 抑制·阻止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軍事態勢도 重要하지만 이에 對備한 外交的 措置와 努力 또한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即 戰爭抑制에 있어서 美國과 같은 友邦과의 安保體制를 堅固히 維持한

다는 것은 北韓의 挑發企圖을 그리고 可能한 中·蘇의 北韓에 對한 積極的인 支援을 抑制함에 있어 至極히 重要한 局面을 차지한다. 또 여기에 있어서도 北韓과의 對話 또한 萬一 成功的으로만 이끌어 진다면 戰爭勃發의 抑制에 有效한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侵略의 實質的인 阻止에 있어서도 美國과 같은 友邦의 單單支援이, 戰爭의 向方에 決定的인 役割을 할것임에는 疑心할 餘地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世界 그 어느 나라도 大部分의 敵의 攻擧에 對하여 獨自的인 能力만으로 對処할 수는 없다는 事實과 特히 韓國의 境遇와 같이 能力의 制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外交的 方便의 効果的인 使用은 制限된 우리 能力을 決定的으로 補完해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때로는 軍事戰力 以上の 防衛의 効果를 갖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自主的인 國防態勢의 提高이다. 敵의 威脅에 對備하여 우리 모자라는 戰力은 外交的 努力의 傾注를 通하여 補強되어야 하겠지만 弱極的으로 우리 國防은 우리 스스로의 責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自主 國防努力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더우기 韓國에 對한 共產侵略을 抑制·阻止함에 있어서 決定的인 寄與를 해 온 美國은 「닉슨·독트린」의 推進을 通하여 韓國化에 着手하고 있다. 殘餘 駐韓美軍의 撤収와 減縮은 中·蘇와의 共存體制의 展開狀態 北韓에 對한 評價를 包含한 韓半島情勢觀, 韓國의 能力, 美國內의 政治動向과 經濟條件에 따라 決定되겠지만, 이들 戰力의 永統的인 殘留는 期待할 수 없다. 韓國에

대한 無償軍援도 進行中인 韓國軍現代化計劃의 終結과 함께 事實上 終結될 公算이 濃厚하며, 古 後의 裝備는 차관형식을 통한 購買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韓半島에서 戰爭이 再發되더라도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한 美國의 韓國에 對한 軍事的 寄與는 地上軍을 除外한 海空軍과 軍需支援에 限定될것이 展望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自主國防의 態勢는 第1次的으로는 精神的 姿勢의 整備에 있겠지만, 長期的으로는 戰略, 編制, 武器體系, 軍需産業等에 있어서의 對外 依存度의 減少라는 緊急한 課題가 核心問題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對外的 依存度를 減少시킨다고 하여 無條件 經濟性마저 外面한채 또 國際的인 協力の 重要性을 輕視한채 自主國防의 方向이 設定되어서는 勿論 되지 않는다는 點이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 들 수 있는것은 經濟的인 軍의 運營을 생각할 수 있다. 國土의 防衛라는 國家至上의 課題에도 不拘하고 終結段階에 접어든 美國의 無償軍援의 展望과 비록 驚異的 伸張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制約된 經濟能力은 軍의 經濟的 運營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다. 戰力의 強化는 教育·訓練·士氣·統率面에서도 찾을 수 있고 動員體制를 包含한 制度的 改善을 통해서도 達成될 수 있다. 그러나 近代戰에 있어 必要不可欠한 現代裝備의 確保는 必然的으로 尠大한 資金의 所要를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組織의 再調整(中間司令部, 類似部隊의 統合을 包含한 全面的인 改編), 量 보다는 質의 優先觀을 主眼으로 한 軍의 經濟的 運營을

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끝으로 들 수 있는것은 平和協定の 問題이다. 駐韓美軍이 實質的으로 撤収를 完了하거나 또는 「유엔」이 共產側이 主張하고 있는 「유엔」軍의 解体·撤収 決議案을 採択하게 되면 UNC는 事實上 無意味해지고 現存의 休戰協定の 法的 効力이 問題로 提起되게 된다. UNC는 1950年 安保理事會의 決議에 立脚되어 있으므로 美國이 強力히 願한다면 拒否權도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總會가 이를 可決하면 美國의 位置는 事實上 거북해진다. 그렇게 될 때 (駐韓美軍은 1954年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殘留할 수 있으므로 이에 對한 法的인 問題는 없다) 韓國休戰協定은 法的인 効力을 保有하느냐의 問題가 本格化된다. 그런데 北韓은 休戰協定을 代替하는 平和協定을 主張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應한다는 것은 北韓을 하나의 政府로서 認定한다는 政治的으로 困難한 問題를 提起할 것이며, 이 「平和協定」이 제대로 준수되겠느냐라는 本質的인 問題마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머지않아 現實化되는 이 問題를 위에서 言及한 「有関國會議」에서 合議決定하여 強大國들에 依하여 韓國의 平和가 保障받을 수 있는 方案의 搜索을 通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